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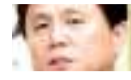
제2178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최창희 대표 “올해 실적 대폭 개선될 것” 12



최종백 대표 “바이오기업, 안정성이 생명” 21



| | |
|--------------------|---------------------|
| 코스피(10일) | 코스닥 |
| ▲ 2058.78 (+6.75P) | ▲ 666.90 (+9.1P) |
| 환율(달러당 원화) | 금리(국고채 3년물) |
| ▲ 1181.20 (+0.70원) | ▲ 1.438% (+0.014%p) |

文 “전례 없는 비상상황”... 재계 “대화로 풀어달라”

文 대통령, 그룹 총수 간담회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배제 못해” 대기업 부품·소재 국산화 당부 기업인들, 관련 규제완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총자산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과 4개 경제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2-3-5-9-15면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고용지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 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라며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하겠다”며 정부에 일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또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의 장기적 정부 지원과 금융·화학물질·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특히 러시아, 독일 등 기초화학이 강한 나라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대기업 간 또는 대·중소기업 간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최고경영자, 경제단체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희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연합뉴스

S&P, 韓 기업 신용등급 하락 경고

차입금 증가·실적 둔화 신용도 우려 성장률 전망도 2.4%→2.0%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0일 한국 200대 기업의 신용도가 차입금 증가와 실적 둔화로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0.4%포인트 낮췄다.

S&P는 이날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와 무역분쟁 심화가 최근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나타났으며, 향후 12개월간 한국 기업의 신용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S&P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60%, 69% 감소했으며 수출 의존형 산업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 산업은 향후 1~2년간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이 영업 현금흐름 감소세에도 자본투자와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하는 공격적 재무정책을 도입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P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작년 말부터 몇몇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 하향이

상향보다 많은 부정적 흐름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한국 기업 중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곳은 없으며 어려운 영업환경과 공격적 재무정책을 고려하면 부정적 신용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박세현 S&P 이사는 “여러 하방 압력에도 한국 기업들은 양호한 운영 효율성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업체들보다 유리한 시장 지위를 점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 챌린지쇼 | 기업설명회(IR) 엑스포

2019. 7. 17(수)~18(목)

서울 코엑스 C홀

핀테크·가상화폐·일자리까지... 금융의 미래를 만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7월 17~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핀테크 챌린지 쇼’입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핀테크 랩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비롯해 부동산·세무·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열립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의 모의 면접과 한미약품·한국도지신타·에스모 등 20여 개의 상장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 엑스포’도 진행됩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대한민국 금융대전 사무국 (02)799-2688 ●사전등록: <http://fexpo.etoday.co.kr/>
●후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반값 5G폰’ 다음달 나온다

이통사, 보급형 단말기 조기출시 경쟁 ‘갤럭시A’ 8월·‘V60’ 10월초 추진 중

이동통신사들이 5G 가입자 선점을 위해 보급형 5G 단말기 조기 출시에 나선다. 삼성전자, LG전자 등과의 협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5G 단말기 출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통사들은 글로벌 5G 선도국이라는 프레임에 앞세워 제조사를 설득할 방침이다.

1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KT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 중저가 모델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9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A 5G 모델을 다음 달로 앞당겨 출시하는 쪽으로 삼성전자와 논의하고 있다. 10월 말 출시하는 LG전자 V60 5G 모델도 10월 초로 일정을 단축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5G 모델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5G

모델은 총 3개가 추가된다. ‘갤럭시 S10 5G’, ‘V50 씽큐’ 등 프리미엄급으로 형성돼 있던 5G 스마트폰 시장을 단말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보급형 시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갤럭시A와 V60 5G 모델의 출고가는 각각 80만 원 중반, 90만 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출고가는 크게 떨어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하반기 5G 선점을 위해 출시 시기를 제조사와 논의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보급형 모델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는 5G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KT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5G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프리미엄 단말기 2개로는 가입자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5G 모

델을 통해 5G 시장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4대 3대 3’ 구조를 깨고 각각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격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출시 전 제품인 만큼 구체적 일정을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제조사들은 같은 시기에 여러 제품의 단말기를 출시하지 않는다. 갤럭시노트10 출시일이 9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갤럭시A 5G폰이 같은 시기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통사들은 “갤럭시노트10(5G모델)이 다음 달 출시되는 만큼 같은 시기에 보급형 5G 단말 출시가 삼성 내부에서 경쟁(일정 조율)이 될 수 있겠지만 고객 선택권 확대를 통한 판매량 증가를 위해 프리미엄폰과 보급폰을 함께 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12면에 계속

김병근 기자 nova@

“전략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韓 정부 문건 보도 파문

日 후지뉴스네트워크, 국내 보도 내용 자극적 재탕
산업부 “日, 일부만 선별해 공개… 北 유출 근거없어”
“안보상 수출 규제 필요” 日 정부 공세 더 거세질 듯

대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안보상 필요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한국 정부 문건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우리나라의 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으로, 5월 국내 언론이 이미 보도한 내용을 ‘전략물자 밀수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있어 해당 문건 보도 의도와 입수 경로를 둘러싸고 한일 간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아베 신조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관리 문제를 입증할 만한 한국 정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10일 보도했다.

FNN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4년간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수는 156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된 건을 비롯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품목에 포함된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UAE)로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FNN에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돼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놀랐다”며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루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인정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일본 기사가 “한국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서 무기 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4년간 156건 밀수출된 것으로 기재됐는데, 이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는지 또 수출 규제에 리스트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자 “한국이 적절하게 수출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개별 사례에 대한 언급은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FNN의 이날 보도로 수출 규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최근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가 부실해 무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FNN의 보도에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6건은 우리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이며, 미국 등 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은 총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측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2015~2016년 일부 국내 업체가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으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으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주: 수출...으로 집계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세부내역(16~19.3월보)

| 연번 | 처분일시 | 위반 업체 | 수출물자 | 수입국가 | 수출액 (천불) | 행정처분 | 통제체제 |
|----|------------|-------|------------------|---------|----------|------|------|
| 1 | 2016.1.27. | S사 | 영화상 카메라 | 중국 | 11 | 수출제한 | WA |
| 2 | 2016.1.27. | N사 | 영화상 카메라 | 사우디아라비아 | 122 | 수출제한 | WA |
| 3 | 2016.2.4. | A사 | 영화상 카메라 | 중국, 베트남 | 77 | 수출제한 | AG |
| 4 | 2016.3.8. | L사 | 영교환기 | 중국 | 5 | 수출제한 | WA |
| 5 | 2016.3.8. | A사 | 무선랜인증증류 | 중국, 미국 | 54 | 교육명령 | WA |
| | | | SCREEN PROTECTOR | 중국 | 153 | 교육명령 | WA |
| | | | | 사우디아라비아 | 11 | 교육명령 | AG |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0일(현지시간) 전략물자 밀수출 실태가 담긴 한국 정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FNN트위터

한국 반도체 쓰는 일본 기업들도 대안찾기 분주

韓 반도체 시장점유율 50~70% 결국 日 PC업체 생산에 악영향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경제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대체할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은 소니에서 분사한 PC사업 부문인 ‘VAIO(바이오)’가 반도체를 한국 이외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가오루 바이오 이사는 “부품 조달에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며 “한국 이외 국가에서 대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프 자회사인 노트북 제조업체 다이아 북의 가쿠도 기요후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직 수출 규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출 규제 영향 분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 국가 | 기업/단체 | 대응 방안 |
|----|------------|---|
| 한국 | 삼성전자 | - 이재용 부회장 방일, 대형 은행과 일본 기업 임원과 회동 - 일본 소재업체들에 안정적 공급 의뢰 - 조달 담당 간부 대만에 파견 |
| | LG화학 | - 일본 규제 품목 확대에 대비한 개발 착수 - 조달 국가 늘려 대응 방침 |
| 일본 | VAIO | - 반도체 한국 이외 국가서 조달 방안 검토 |
| | 다이아 북 | - 수출 규제 영향 분석 |
| | JSR 등 소재업체 | - 수출 신고 서류 준비 만반 |

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총 50~70%에 달한다. 한국에서의 반도체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PC업체 생산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바이오는 일본 내에서 PC를 생산한다.

규제 대상이 된 일본 반도체 소재 공급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리지스트 생산업체인 JSR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계약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만큼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어려

움을 토로했다. 도쿄오카공업도 “수출 신청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한국 고객으로부터 그들이 리지스트를 다른 데로 불법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입업체들이 중국, 대만 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됐을 뿐이라며 심사만 통과한다면 여전히 자국 소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허기를 받기까지 약 90일이 걸려 이전처럼 원활한 조달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도 수출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일본에 입국, 대형 은행 경영진과 면담했고, 이번 주 후반까지 체류하면서 필요하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 임원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삼성은 조달 담당 임원을 대만에 급파했다. 이번 규제 대상 중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에칭가스를 다루는 소재업체 공장이 대만에 있어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해외출장 지원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6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kotra | 무역·투자 종합 상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모든 조치 다하겠다”... 재계도 ‘단기·중장기 대응’ 공감

문재인 대통령-기업인 긴급 간담회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협조를 주문했다. 기업인들은 적극 협조를 다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재계는 ‘비상체제’에 공감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 의견 쏟아내 =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품 국산화의 장기적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금

30대 그룹 총수·CEO 참석
“민간 차원서 설득 나서겠다”
부품 국산화 위한 지원 요청
규제 완화 필요성 재차 강조

융과 환경 분야 등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기업인은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자본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IB)같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위협을 회피하며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IB로 나아가 수 있는 쪽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은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



국내 30대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예로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 신규 물질을 개발하는데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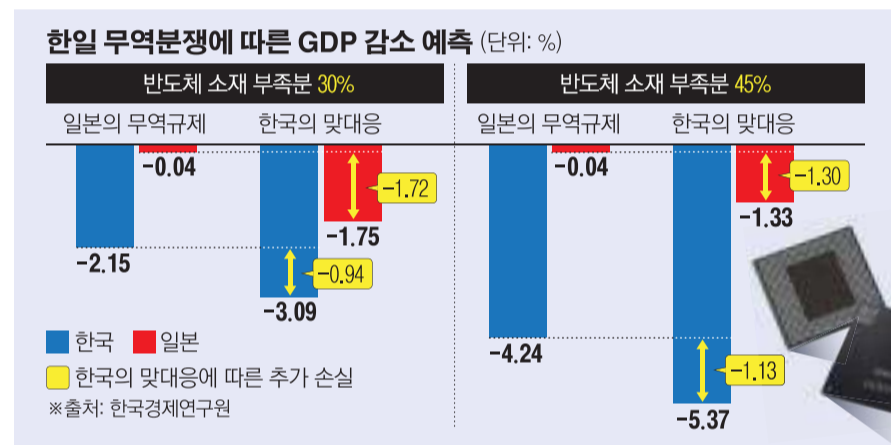
업 간 공동 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일본에 경고 메시지 =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날렸다.

또 장기화를 대비한 국제무대에서 부당한 일본 정치보복과 세계 경제 악영향을

적극 알려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대강’ 대치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불참,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日에 보복맨 韓 피해 더 커... 보여주기식 대응 자제해야”

한경연 세미나... “中에 전기·전자 주도권 빼앗길 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對)일본 수출 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낼 경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복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자리에 일본 기업이나 수출 기업이 빠르게 진입하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타격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주관으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일본의 무역규제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보복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 수출 규제만 존재할 경우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만 감소하며 피해 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가 3.1%, 1.8% 감소하며 손실이 확대된다. 만약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심각하며 부족분이 그 이상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

특히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 기업을 일본 내수 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된다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을 주도하던 한·일 양국이 차질을 빚으며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된다.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보여주기’식으로 선불리 보복 대응하는 대신 양국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맞대응 확전 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의 제를 발굴해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깜박하기 쉬운 초중고 학교납입금!
(스쿨뱅킹 카드 납부)

KB국민카드 자동납부로 혜택도 챙기세요

최초 납부 시 5천원 캐시백 (2019.7.1~8.30)
납부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결제계좌로 5천원 입금

* 캐시백은 회원별 1회 지급(캐시백 이전 카드 또는 자동납부 해지 시 제외)

- 대상 KB국민카드 회원 (KB국민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 산정방법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KB국민카드 자동납부 고객센터 1577-9900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 본 행사는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납입금이야?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께서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 교육비, 기타(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항목의 납입금입니다.

***신용카드납입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bcard.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카드

취업자 증가 17개월 만에 최대... 실업률 20년새 최악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8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나온 결과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5세 고용률은 67.2%로 0.2%P 오르며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교육서비스업(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6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만5000명), 제조업(-6만6000명), 금융·보험업(-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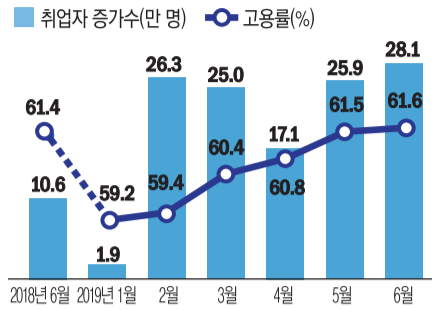
취업자 전년 동월 비 28.1만명 ↑
15~65세 고용률 67% '역대 최대'
"재정 영향... 본격 회복세 아냐"
실업자 10.3만명 ↑ ... 실업률 4%
40대 취업자 18.2만명 줄어

1000명) 등에서 줄었다. 숙박·음식점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던 도·소매업은 4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연령대별로 30대 취업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40대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과 30대는 취업자가 각각 4000명, 3만2000명 줄었으나 인구 가더 큰 폭으로 줄면서 고용률은 0.3%P, 0.5%P 올랐다. 40대는 취업자 감소(-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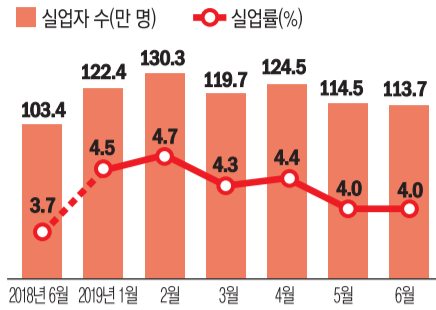
취업자 증가수·고용률



만2000명)가 인구 감소(-16만 명)를 웃돌면서 고용률이 0.7%P 급락했다. 50대와 60세 이상은 취업이 각각 12만7000명, 37만2000명 늘고 고용률은 0.4%P, 1.5%P 올랐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는 올해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확대본(10만 명)이 반영됐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

실업자 수·실업률



직은 38만8000명, 일용직은 6000명 각각 늘었으나 임시직은 8만5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3000명 각각 줄었다.

일자리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일자리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고용회

복세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률도 4.0%로 0.3%P 올랐다. 청년층에선 실업률이 10.4%로 1.4%P 급등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엔 지방직 공무원이 3월 접수, 5월 19일 시험이었는데 올해엔 4월 접수, 6월 15일 시험으로 옮겨졌다"며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6만5000명 늘었지만, 작년 5월과 올해 6월 실업자 수를 비교하면 작년 5월에는 46만 명이었고 올해 6월에는 45만3000명이다. 그런 점을 이번 실업자가 10만3000명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확장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11.9%로 0.5%P 올랐다. 청년층에선 24.6%로 1.7%P 상승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게 육군 구난로봇" 유영민(왼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육군 구난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12일까지 진행되는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흥·동탄 자전거 도로서 전동 키포드 썩썩 달린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경기도 시흥시와 동탄 일대에서 공유 전동 키포드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키포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전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회는 전동 키포드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허가를 내줬다.

심의회는 매스아시아와 울롤로가 각각 경기 화성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전동 키포드 공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자전거 도로의 노면과 폭을 정비하고, 최고 속도(시속 25km 이하)·최대 중량(30kg 미만) 제한 등 차체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현행법은 전동 키포드를 차(車)의 일종으로 분류해 자전거 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해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특례가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전동 키포드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정보시스템이 신청한 라테아트 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식용 색소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제품이다. 기존엔 식품위생법이 커피에 식용 색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려웠다. 심의회는 커피에도 1kg당 식용 색소 0.1g 이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D 프린터 사업을 임시 허가했다. 식약처도 임시허가 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 색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정비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대기업 CEO 고대 경영학과 28명...서울대 제쳐

500대 기업 조사... CEO 10명 중 4명 'SKY' 출신

국내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스카이(SKY)'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495곳의 대표이사 CEO 676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SKY 출신이 전체의 42.6%(241명)에 달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1명(23.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려대(64명)와 연세대(46명)가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32명)와 한양대(26명), 서강대(21명), 한국외대(15명) 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지방대 중에는 부산대(18명)와 경북대·영남대(각 13명)가 '톱10'에 이름

국내 500대 기업 CEO 출신학교 '톱10'



을 올렸다. 외국대학 출신은 35명이었다. 전공별로는 경영학도가 모두 127명(23.3%)으로, 4명 가운데 약 1명꼴이었

다. 특히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 28명으로, 서울대 경영학과(25명)를 제치고 최대 학력으로 꼽혔다. 서울대 화학·화학공학과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연세대 경영학과(15명)와 서울대 경제학과(14명) 등도 10명 이상이었다.

500대 기업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 부문에서는 경기고(14명)와 경북고(12명)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진주고·경남고·경북사대부고·마산고·부산고·신일고 등이 각 8명이었다.

CEO 출신 지역으로는 영남권이 129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서울 105명(27.3%) △해외 43명(11.2%) △호남 40명(10.4%) △충청 32명(8.3%) △경기·인천 25명(6.5%) △강원 10명(2.6%) △제주 1명(0.3%) 등의 순이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의료·차공유·로봇 등 신기술, 세종·부산에 모여라

규제 유예... 제약 없이 실험

의료·차량공유·로봇 등 각종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이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활성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은 공유형 모빌리티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통합공유교통 서비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홈을 통한 주거의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7대 분야가, 부산은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미래형 의료시스템 실증 도입, 개인차량 공유서비스 같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1년 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억~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 차에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실증비용(5억~10억 원 내외)을 지원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오늘 개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1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올해 3월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지난달 27일 양국 통

상장관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올해 11월 타결 목표로 협상 범위, 협상일정 등을 포함한 협상 세칙(ToR)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FTA 적용 상품 외 추가 시장 개방을 비롯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192억 달러다. 이는 아세안 교역국 중 베트남(683억 달러),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싱가포르(198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4대 교역국으로서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교역 다변화 기반 확보와 경제협력 강화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이낙연 “日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 국회에 요청”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 홍남기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 제조업 일자리 대책 마련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서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재 개발이 단시간에 가능하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

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됐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투자와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설명하고, 30~40대 일자리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자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늬 기자 honey@



머리 맞댄 성윤모·박영선 장관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 출퇴근 때 두 시간씩 허용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두 시간씩 카풀 영업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한다.

여야 의원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하루 두 차례 2시간씩 카풀 영업을 하는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택시·카풀 사회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영업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 금지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의결 내달 마쳐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정미(사진)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며 여당이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지



정 과정에서 고발된 상황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신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확장 재정 예산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돼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으로 ‘국가재정 10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한국·바른미래 “윤 고발 검토”

청와대는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전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제출 기한이 전날 만료됐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시한은 15일이다. 국회가 보고서를 시한 내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식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양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울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

말을 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요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고서 채택을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안전경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위해 오늘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년간 질주한 '딱정벌레車'... 긴 여정에 마침표

'폭스바겐 비틀' 역사 속으로

독일 나치에서부터 미국 히피의 아이콘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독일 폭스바겐 '비틀'이 8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미국 CNN방송은 폭스바겐의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생산해온 비틀 '파이널 에디션' 5961대 중 마지막 한 대를 끝으로 비틀 생산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10일 비틀 생산 종료 행사로 비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최후의 비틀은 바로 박물관으로 향한다. 푸에블라 공장은 비틀 생산 종료 후 북미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한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열린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서 비틀의 '파이널 에디션' 시리즈와 함께 비틀의 단종 계획을 밝혔다. 비틀의 마지막 세대는 컨버터블과 하드톱 2종이며 기본 가격은 각각 하드톱인 쿠페가 2만3045달러(약 2722만원), 컨버터블이 2만7295달러다.

딱정벌레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틀(beetle)이라는 이름이 붙은 비틀은 폭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

나치의 국민차 프로젝트로 출발
중산층 번영 상징으로 자리매김

전기차 개발 등 예견된 이별

SUV 선호 등 소비자 취향 변화
파이널 에디션' 끝으로 생산 중단

바겐에는 영광의 상징이었다. 비틀은 실현되지 않은 나치의 국민차 프로젝트로 어두운 출발을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의 르네상스와 중산층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 히피 문화의 아이콘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비틀은 코카콜라 병과 같이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오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판매되는 세계화의 사례였다.

비틀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돌프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 전설적인 자동차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국민차(Volkswagen)'를 설계했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도 바로 여기에 서 따온 것이다.

비틀은 1938년 처음 세상에 나왔으나 본격적인 양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뤄졌다. 1949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했으며 이후 파죽지세로 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비틀은 1968년 월트디즈니의 영화 '러브 허그'에 '허비'라는 의인화된 애칭으로

등장하면서 그 명성을 확고하게 굳혔다. 오리지널 비틀은 1938년부터 2003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기까지 무려 65년간 2100만 대 이상이 생산됐다. 폭스바겐은 이후 1998년과 2012년에 각각 2세대와 3세대 모델을 출시하면서 비틀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성기와 달리 현재 소비자들의 취향이 SUV 등 대형 차종으로 옮겨가면

서 비틀도 맥을 못추게 됐다. 여기도 독특한 플랫폼으로 '골프'나 '폴로'와 다른 생산 라인이 필요해지면서 생산 비용이 늘어나 업체에는 부담이었다.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컸던 데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틀과의 이별은 예견된 일이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택시처럼 타는 헬기

하늘을 나는 택시 시대가 개막했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헬리콥터 서비스인 '우버콥터'를 시작한 가운데 우버 헬기 옆을 한 무리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우버콥터는 뉴욕 맨해튼 금융지구에서 JFK국제공항 사이를 약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요금은 편도로 200~225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뉴욕/AFP연합뉴스

호황에 금리 내리라니... 딜레마 빠진 파월

121개월째 경기 확장세 불구 트럼프 행정부 금리 인하 압박



대 인플레이션은 2.7%였다. 지난 5월 조사 때의 2.5%에서 0.2% 포인트 올랐다.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로 올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2.6%를 기록했다. 또 이달 미국 경기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째 확장세를 지속해 사상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연준의 우려와 달리 경기가 호황인데 굳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는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이 나온다. 이날 패트릭 허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급한 필요성은 없다"면서 "올해 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연준이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지적하며 연준에 금리인하 공세를 이어갔다.

만일 파월이 경기 호조에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카드를 제외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시장은 당장 10~11일 의회 증언에서 파월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은 오는 30일 FOMC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공식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 미국 부문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송은 "연준이 곤경에 빠진 면이 있다"며 FOMC의 의견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는 만큼 당장 금리 인하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는 위원 17명 가운데 인하와 동결이 8대 8로 정확히 맞섰고 1명은 인상을 주장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위기의 보잉... '항공기 제조' 2인자로 추락

상반기 판매량 1년새 37% '뚝' 에어버스보다 150대 못 팔아

두 차례의 항공기 추락사고 여파로 고전하는 미국 보잉이 8년 만에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사' 타이틀을 유럽 에어버스에 내어주게 생겼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상반기 항공기 판매대수가 총 239대로 전년 동기(378대) 대비 37%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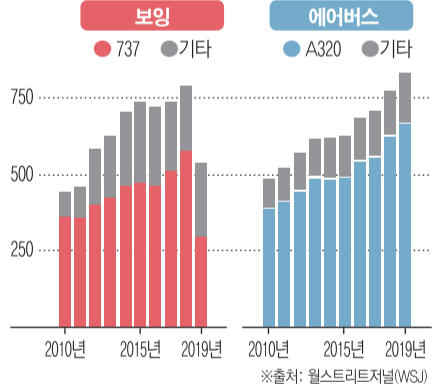
부진의 원인인 737맥스 기종은 3개월 연속 수주가 제로(0)였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탑승자 총 346명 전원이 사망한 고가 발생한 이후 737맥스는 3월 중순부터 전 세계에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737맥스 혼란은 보잉의 명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잉은 지난 4월 737 기종 생산을 종전보다 20% 가까이 줄여 현재 매월 42대 속도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확대 계획도 보류했다. 재고로 남아있는 737맥스 항공기는 150대가 넘는다. 미국 항공사들이 보유한 737맥스 약 380대도 운항이 멈춘 상태여서 항공사 측이 보잉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잉은 737맥스 운항재개를 위한 결함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9월 말 전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항공당국이 운항 재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추이



개 승인을 하더라도 현재 놓고 있는 비행기들이 재가동하려면 수개월은 더 걸린다고 WSJ는 지적했다.

반면 라이벌 에어버스는 737맥스를 대체하기 위한 항공사 수요가 몰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상반기 38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3대에서 늘어난 수치다. 주력 기종이자 737맥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A320네오의 생산 확대 계획도 이미 밝힌 상태다.

에어버스는 올해 전체로는 880~890대를 납품한다는 목표다. 이는 항공기 제조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당초 보잉은 올해 판매대수가 최대 905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737맥스 위기로 판매목표 제시를 중단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에어버스는 연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사 왕좌를 탈환하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억' 소리 나는 신입 연봉... 日, IT 인재 확보 총력전

연공서열형 보수 탈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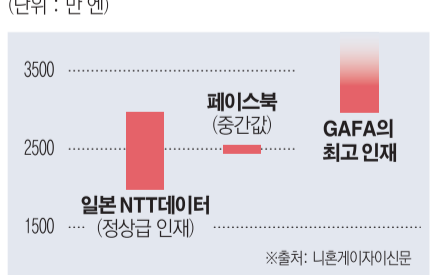
일본 IT 업계가 파격적인 대우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전자업체 NEC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신입 엔지니어에게도 연봉 1000만 엔(약 1억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막대한 보수로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NEC는 올해 10월부터 외부 평가를 반영, 젊은 연구자의 보수를 결

세계 IT 대기업들의 직원 연봉 수준



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는 신입사원도 학창 시절 저명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실적이 있으면 1000만 엔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다. 지난해 4월 입사한 박사 학위를 가진 신입사원 월급이 약 28만 9000엔이어서 연 2회 상여금을 더하면 연봉은 수백 만 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후지쯔는 인공지능(AI) 전문 인재를 그룹 전체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7% 늘어

난 25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2018년 설립한 AI 자회사도 영입한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일본 임원 수준인 연봉 수천 만 엔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업체들도 일본의 특성인 연공서열형 연봉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니는 올해부터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0% 인상했다. NTT데이터는 지난해 정상급 IT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을 2000만~3000만 엔 이상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네이버 산하 라인도 우수한 젊은 기술 인력에게 1000만~2000만 엔의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높여도 일본 IT 업계의 연봉은 GAFAs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연봉 3000만~4000만 엔인 엔지니어가 수도룩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도전은 늘 두려운 것
- 도전은 늘 두근거리는 것

도전하는 삶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도전하는

LIFE IS
GOOD



와이진 (Y.ZIN) 국내 최초 여성 수중 사진 작가.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이제껏 누구도 담아내지 못했던 신비로운 수중 세계를 표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자연색 그대로의 완벽한 색을 구현하는 LG OLED TV를 통해 작품을 모니터링 중인 그녀의 모습.



인터넷銀 잡아라... 저축銀 '디지털 대전'

저축은행 업계의 디지털 영토 확장 바람이 거세다. 해외 송금 업무 개시와 디지털전략부서 확충으로 인터넷은행 따라잡기에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기존 시중은행이 버티고 선 오프라인 영역과 달리 온라인 은행영업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계산한다.

10일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외환 송금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 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막바지 시험 중이고 늦어도 이달 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환전 서비스를 해왔다. 웰컴 측은 이번 외환 송금업무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통해 소비자 확보와 온라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모텔은 카카오펀크다. 현재 카카오펀크의 외환 송금 누적 건수는 총 50만 건 정도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웰컴이 카카오펀크 송금 규모의 일부만 취해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자본금 1조

| | 주요 전략 | 모바일 플랫폼 명칭 |
|---------|---|------------|
| SBI저축은행 | 모바일플랫폼 활성화 간편결제 연계 강화 (토스, 페이코 등) | 사이다뱅크 |
| OK저축은행 |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전략부서 확대 | OK저축은행 |
| 웰컴저축은행 | 모바일플랫폼 선정 해외 외환송금, 환전 등 | 웰뱅 |

웰컴저축銀 내주 외환 송금 서비스 스타트... 규제 완화 후 최초
OK저축銀 UX팀 신설·확대로 모바일 서비스·상품 개발 집중
SBI저축銀 '사이다뱅크' 출시... 토스·페이코 간편결제 제휴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해외 송금업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해외송금업의 수익률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없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모바일 플랫폼 '웰뱅'의 다운로드 건수가 55만 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20~40대 젊은

고객이 90% 가까이 차지하는 점을 활용해 외환 업무까지 영토를 넓혀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 개인 외화 송금액은 2017년 기준 194억 달러 규모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기존 디지털 담당 부서인 '미래디지털부'를 올해부

터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선점을 위해 UX(사용자 경험) 팀을 올해 초 인력을 충원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 상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모바일 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UX 팀을 신설·확대 운영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품은 사업 개발단계부터 온라인 영업과 판매를 고려해 디자인하고, 이를 위해 기획과 디자인, 영업부서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를 지난달 24일 출시한 뒤 토스와 페이코 등 전자결제 업체와 빠르게 제휴를 맺었다. 업계 1위인 SBI는 모바일 플랫폼을 상대적으로 늦게 출시했지만, 자산규모와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온라인과 디지털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웰컴저축은행은 가칭 '웰뱅페이'를 준비 중이다. 형식은 '제로페이'와 유사한 바코드 결제방식이며 연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최종구 금융위원장 "특사경 내주 지명 완료"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 시작을 알리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예산이 확정됐고 내주 중으로 검찰에서 지명 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사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력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권위원회가 정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정보처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은 수사대상에 인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금융위의 요구를 수용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특사경은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되어 있다"면서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권한의 오남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기업銀, 사회적 경제기업 511억 지원 '업계 1위'

(상반기)

신한 427억·하나 248억 順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총 1915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2차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금융 공급 실적 평가와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 1330건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3424억 원)의 56%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 대비 11.5% 늘어난 수치다.

지원 대상별로는 사회적기업이 1414억 원(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협동조

합(405억 원), 마을기업(69억 원), 자활기업(2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대출이 1868억 원으로 전체 98%에 해당했다. 이 밖에 기부와 후원 25억 원, 제품구매 17억 원, 출자 5억 원 순이었다.

은행별 지원 현황으로는 기업은행이 511억 원으로 전체 27%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427억 원(22%), 하나은행 248억 원(13%)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우리은행 209억 원, 농협 163억 원, 국민은행 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는 경남은행이 12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1144곳에

2102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유형별로는, 대출 376억 원, 보증 1470억 원, 투자 25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규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사회 투자펀드 집행을 통해 자금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반기 대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을 내놓고, 새마을금고는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울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 공개도 이달 안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단위: 만 원, 2019년 6월 20일 기준)

| | |
|----|----------|
| 기업 | 510억5100 |
| 신한 | 427억2600 |
| 하나 | 247억7400 |
| 우리 | 208억7200 |
| 농협 | 163억4300 |
| 국민 | 146억5500 |
| 경남 | 124억7600 |

※출처: 금융위원회

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금융페이지를 신설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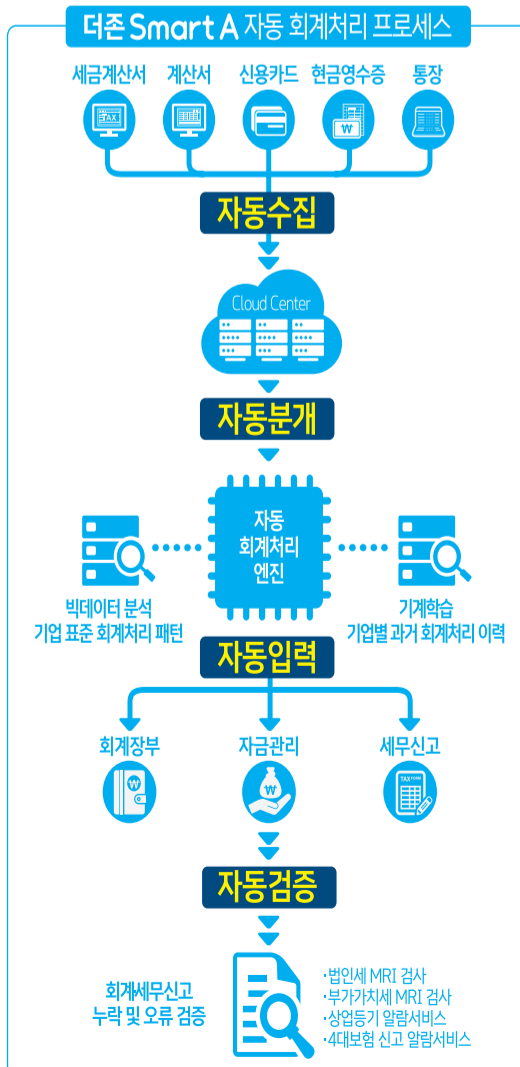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美·日 경쟁사 웃는다”...한·반·디, 외딴섬에 갇히나

日 '경제보복' 침묵하는 美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장기화하고, 미국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만 ‘외딴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재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세계 1위인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멈추면 미국과 일본 기업 역시 피해를 입는 탓에 일본의 무역제재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론에 대한 반론이다.

10일 세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이 끊겨도, 미국과 일본 IT 업계에 미칠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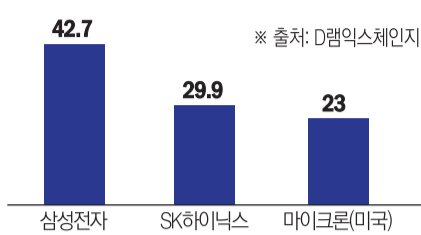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점유율과 기술력에서 세계 선두권이지만, 대체재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체재 불가능한 제품은 최상위급 정도다.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거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재고도 많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첨단 반도체 제품은 우리나라만 생산할 수 있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미국 마이크론 등도 모두 생산한다”며 “계다가 경쟁사에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경우, 우리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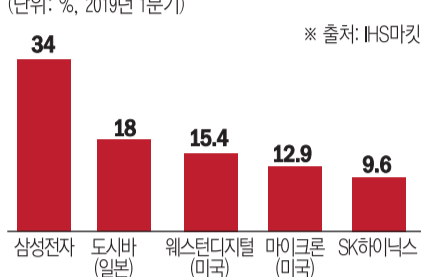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게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시장의 70.4%, 낸드플래시 시장의 43.7%를 차지한다. 두 업체 공급이 끊기면 D램의

글로벌 D램 점유율 (단위: %, 2019년 1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점유율 (단위: %, 2019년 1분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감소 IT 전자업계 충격 적을 수도 美 마이크론·日 도시바 대안 OLED도 韓·中 업체만 피해

경우, 23% 점유율인 미국 마이크론에 수혜가 돌아간다. 낸드플래시 역시, 2위인 일본 도시바와 3·4위 미국 웨스턴디지털·마이크론으로 수요가 몰린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 소장은 “일본의 규제는 우리나라 외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엔 호재일 수 있다”며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세트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국의 피해는 적고 수혜도 보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무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LG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하는 TV용 OLED를 봐도 LG전자와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다. OLED TV를 만드는 미국 기업은 없고, 일본 기업 중에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만들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소니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서 TV와 비디오 사운드 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의 87%를 장악한 스마트폰용 OLED에서도 중국 BOE가 빠르게 추격 중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목줄을 조이고 미국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태는 일제 강제 징용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문제로 시작될까 다투어 양국 정부 결단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논리에 우리 기업이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이병태 교수는 “이번 경제 무기화의 본질은 외교 문제라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범 반도체선진화구조연구회 대표는 “일본의 전략전술에 말려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 보복의 발미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자동차·조선·화학 등 다른 핵심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일본 대형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반도체 R&D도 ‘백척간두’

〈百尺竿頭〉

연구소는 ‘공장의 축소판’

고품질 노광 소재 떨어지면

EUV 미세공정 개발 고립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면 시행한 지 일주일 가까이 흘렀다.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생산 차질을 넘어 ‘초격차 기술력’에도 금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되면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연구소가 공장의 축소판으로 불릴 정도로 연구와 생산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이다. 소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R&D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가지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감광액)다. 10나노 이하 미세공정을 위해서는 EUV가 필수다. 2년마다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를 2배 높인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대표 기술로 꼽히는 것이 바로 EUV 노광 공정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

산) 사업부는 이미 EUV 노광 공정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7나노 칩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역시 차세대 7나노 공정에선 EUV를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도 EUV에 관한 R&D를 계속하고 있다.

EUV 라인인 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고품질 포토 레지스트가 필수다. 포토 레지스트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5~6년이 늦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일본의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구하지 못하면 SK하이닉스의 경우 EUV 공정 R&D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EUV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회사는 EUV 공정이 업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1~2년 남은 것으로 보고 R&D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 일본 제품을 핵심 공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R&D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미세공정이 진행되어 EUV 공정까지 이어진다면 D램 쪽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LG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최고상 LG전자와 8개 부문 최다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별화된 가전 제품으로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절감 혁신 기술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0일 열린 제22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각 8개씩 상을 받으며 업계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에너지를 많이 절감한 기업 또는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삼성전자는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8개의 제품이 상을 받았다.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위 사진〉가 수상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냉방효율 18%, 난방효율은 27% 개선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에어컨 성능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고효율화, 인버터 압축기 소비전력 저감, 풍량 손실 최소화와 더불어 구석구석 균일하게 바람을 보내주는 유로(바람길) 설계 기술 등을 적용했다.

‘에너지 대상’에는 ‘삼성 전기레인지 인덕션’이 선정됐다. ‘에너지 기술상’에는 ‘삼성 비즈니스 모니터’가, ‘에너지 CO2 저감상’에는 노트북 Pen S가 수상했다. 시스템 에어컨, 드럼세탁기, 일반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4개 제품은 ‘에너지 위너상’에 포함됐다.

LG전자 8개 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G 디오스 양면형 냉장고(아래 사진)는 ‘에너지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디오스 냉장고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도입해 냉기 공급량을 세밀하게 조절해준다. 또 신개념 수납공간인 매직스페이스 기능을 적용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했다. 휘센 벽걸이 에어컨과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는 각각 ‘에너지효율상’과 ‘이산화탄소(CO2) 저감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디오스 식기세척기 △퓨리케어 정수기 △디오스 상냉장·하냉장 냉장고 △트롬 통돌이세탁기와 트롬 드럼세탁기 등 총 5개 제품이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자동차 기술 공모전인 ‘제14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2019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본선을 10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라는 대회 목적에 걸맞게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ITY’에서 열렸다. 지난해 4월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12개 참가 팀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제공한 연구용 차량 i30 1대와 제작지원금 7000만 원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아시아나, 울란바토르 신규 취항

아시아나항공은 ‘칭기즈칸의 도시’ 몽골 울란바토르에 주 3회 신규 취항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가졌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인천 21시 05분 출

발(울란바토르 23시 50분 도착), 울란바토르 다음날 01시 20분 출발 (인천 05시 30분 도착)이며, 토요일은 인천 20시 45분 출발(울란바토르 23시 25분 도착), 울란바토르 다음날 00시 50분 출발(인천 05시 도착)이다. 단, 9월 1일부터 토요일 출발 편은 인천 출발시간이 21시 35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울란바토르 행 항공기는 290석 규모의 A330을 투입해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의 울란바토

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의 약 45%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장 만나고 싶은 울란바토르 명소를 선택해서 경험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긴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왕복항공권 2매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김기승 기자 kissong@

삼성중, LNG 실증 설비 착공...수주 경쟁력 강화

내년 말까지 거제조선소에 조성
조선해양 신기술 자체 검증
을 LNG선 수주 10척 세계 1위

LNG운반선, FLNG(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설비) 등 LNG 제품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LNG 연구개발 투자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10일 거제조선소에서 남준우 사장 주관으로 '조선-해양 LNG 통합 실증 설비' 착공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삽을 뜬 LNG 통합 실증 설비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천연가스 재액화 공정 설계 △부유식 천연가스 공급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신냉매 활용 공법 △극저온 단열 저장용기 등 LNG 핵심 기술들의 성능 검증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시설이다.

실증 설비는 거제조선소 내 3630㎡(약 1100평) 부지에 조성된다. 회사 측은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그리스 가스로그(GASLOG), ENI(이탈리아), 말레이시



남준우(왼쪽 다섯 번째)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선급 주요 관계자들이 10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LNG 실증 설비' 착공식에서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아 페트로나스, 영국 로이드, 노르웨이 DNV-G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주요 선급 등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로이드 본부장은 "삼성중공업이 다양한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LNG 산업에서의 커다란 진보와 공헌을 할 것"이라며 실증 설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실증 설비가 완공되면 LNG관련 신기술

의 실증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돼 차세대 기술의 적용을 앞당길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특히 이번에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해양 액화 실증 설비도 같이 구축해 FLNG 등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향후 국내 업체의 LNG 핵심 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LNG선

운을 위한 선원 교육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LNG 분야

의 기술자립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실증 설비 구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세계 최고의 LNG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LNG운반선 10척, 원유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 1기 등 총 14척(32억 달러)을 수주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78억 달러)의 41%에 해당한다. LNG운반선 수주 실적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FLNG의 경우 현재까지 전 세계 발주 물량 4척 중 3척을 수주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스위스 해운회사인 MSC로부터 2017년 9월 수주한 2만3000TEU(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세계 최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이 건조돼 출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효성화학, 베트남 공략 청사진 제시

박준형 사장 "PP공장 2023년 풀가동"...생산량 두 배 확대

박준형(사진) 효성화학 사장이 베트남 공장을 완공 후 2년 내 풀(Full)가동해 수익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일 효성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9일 열린 애널리스트 대상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베트남에서 건설 중인 폴리프로필렌(PP) 설비와 관련해 "신규 설비 첫해 100% 가동은 어려우나 2023년부터 풀 가동이 목표"라며 "공장의 가동 외에도 풀 가동을 위한 조건은 영업력으로, 판매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해 베트남에 PP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3억 달러를 투자해 PP공장과 이를 위한 탈수소화 공정(DH) 시설, LGP 가스 저장탱크 등을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공장이 완공되면 효성의 PP 생산능력은 연간 120만 톤 수준으로 기존 60만 톤의 2배가량 늘어난다. PP 공장은 올해, DH·LPG 관련 설비는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박 사장은 이번 베트남 공장이 완공될 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PP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효성이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플라스틱 수지원료인 '폴리케톤' 역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폴리케톤의 판가는 일반 플라스틱 3배 수준"이라며 "이익률은 PP(10%) 대비 높은 25%가 기본이며, 30%도 문제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향후 효성화학의 방향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전략적인 협력 등 다각적인 성장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과거 효성 자금만 이용해 성장했으나 향후 전략적 협력이나 외부 차입 등을 통한 성장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사장은 시장의 기대에 따라 거래 주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도 거래 주식이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액면분할·무상증자도 검토·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현대차, BMW X시리즈 서주호 디자이너 영입

디자인 이노베이션 상무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맡겨



서 상무가 외장 디자인을 맡은 GMC의 콘셉트카 '그라니트(Granite)'가 2010년 개최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올해의 디자인'에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GM과 BMW를 거친 한국인 디자이너 서주호(사진) 상무를 영입했다. GM시절 획기적인 크로스오버 콘셉트카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현대차는 10일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주호 상무를 현대 디자인이노베이션실 상무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서 상무는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행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디자인 외 영역과의 융합,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도 맡는다.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산업디자인 스쿨을 거친 그는 1999년 GM그룹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는 BMW에서 선행 디자인을 담당하며 X5, X6, 3/8시리즈 등의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를 했다. 이어 2015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NIO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최근까지 상하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총괄했다.

서 상무는 현대디자인센터장인 이상엽 전무와 GM그룹에서도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전무는 "서 상무가 슈퍼카, 전기차 디자인에서 얻은 경험과 현대차의 오랜 디자인 전통이 만나면 역동적으로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맞춰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해외에서도 데이터 로밍을 마음껏 즐기세요

KT 5G 슈퍼플랜으로
해외 185개국에서도 데이터 사용을 원하느대로 즐기세요

* 베이직/스페셜 최대 1Mbps(~19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100kbps 속도로 제공), 프리미엄 최대 3Mbps 속도



국내에선 5G데이터가 기간 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
해외에선 더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 무제한 서비스를 마음껏!

kt 5G 슈퍼플랜

[베이직 / 스페셜 요금제]

- 해외 인터넷 무제한 (최대 1Mbps)
- 국내 완전무제한

[프리미엄 요금제]

- 해외 무제한 (최대 3Mbps)
- 국내 완전무제한

당신의 초능력 **kt 5G**

- 국내 완전 무제한 : 스마트 기기/테더링은 별도 제공(초과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
- 해외 무제한 : 베이직/스페셜 최대 1Mbps(~19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100kbps 속도로 제공), 프리미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로밍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공영홈쇼핑 체질개선 착수… 올 매출 22% 늘리겠다”

최창희 대표 개국 4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공영홈쇼핑은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쌍둥이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려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체질 개선에 착수할 것이다.”

10일 공영홈쇼핑이 개국 4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의 화두는 공영홈쇼핑의 ‘환골탈태’였다. 최창희 대표는 공영홈쇼핑의 체질개선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생방송 시간 확대·국민 전략상품 발굴 등 영업 전략 해외 OEM제품 판매 재개도 목표 달성에 도움 될 듯 박영선 장관 제안한 ‘아리랑TV와의 협업’ 기대감도

실제로 2015년 창립 이후 공영홈쇼핑은 매출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액은 4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분 자본잠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 대표는 올해 제품 취급액 7400억 원, 매출 1850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6, 22% 증가한 규모다. 당기순손실 예상 규모는 -48억 원으로 잡았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대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져야 하는데 이대로면 자본잠식을 당할 위기”라며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은 1516억 원의 매출액과 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7년 대비 9.1% 늘었으나 영업 적자

폭은 45억 원에서 20억 원가량 늘었다. 당기순손실도 52억 원으로 전년 35억 원에서 확대됐다. 공영홈쇼핑의 당기순손실은 2015년 -190억 원, 2016년 -94억 원, 2017년 -35억 원, 지난해 52억 원으로 4년 동안 400억 원 가까이 쌓였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3월 법인을 설립해 그해 7월 방송을 시작했다. 최 씨는 방송 시작까지 준비 기간이 짧아 그 여파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월 만에 사람 뽑고, 방송 설비를 갖추며 준비했는데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며 “그 4개월의 그림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낮은 판매 수수료율, 20·21번으로 밀린 채널 번호 등도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체질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영홈쇼핑

실적 개선의 장애물로 꼽힌다. 공영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은 지난해 4월 재승인 과정에서 23%에서 20%로 낮아졌다.

올해 실적 개선을 위한 영업 전략으로 최 대표는 △다양한 중기상품 POOL 전략적 확대 △생방송 시간 확대 운영 △국민 전략상품 발굴 등을 꼽았다. 의류, 침구류와 같이 국내 제조기반이 미흡하고, 국내 제조 시 원가 상승률이 높은 상품을 하반기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생방송 시간을 1일 18시간 20분(06:40~

01:00)으로 기존 운영 시간(07:15~00:45) 보다 50분 늘려 운영한다.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전, ‘쌀의 날’, ‘제철 과일 대전’ 등 특집전과 국민 삼계탕, 국민 청국장과 같은 국민 대표상품 개발·육성도 추진한다.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 판매 배제 방침을 포기한 것도 실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영홈쇼핑은 5월 이사회에서 ‘해외 OEM 제품’ 일부를 취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이 100%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공영홈쇼핑은 올해부터 해외 OEM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OEM 생산 업체들의 반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우려 등으로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OEM 제품 판매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익성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리랑TV와의 협업도 기대 요인이다. 이달 초 공영홈쇼핑은 아리랑TV와 손잡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아리랑TV와의 협업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낸 아이디어”라며 “평일 저녁에 매일 보신다고 하셔서 긴장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4월 발생한 생방송 방송 사고에 관해서 최 대표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밤에 잠을 잘 못잔다”고 토로했다. 공영홈쇼핑은 당시 약 1시간 동안 방송 중단 사고를 냈고, 이를 뒤 밤 10시경에 생방송 송출 방송사고를 냈다.

공영홈쇼핑은 9월부터 건물 내 전력 공급 중단 시 비상 발전차를 운영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스템 운영위원회 신설 △전기설비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비상상황훈련(분기별 1회), 전기 안전 교육(분기별 1회) 진행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中企 찾은 김상조…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 “中企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였다. 중소기업계는 김 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준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은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실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 중 제일 먼저 중기중앙회로 와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겨냥한



김상조(맨 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왼쪽에서 두 번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반도체 제품 3개를 규제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97개도 피해를 본다”며 “소재 국산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

인스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정책 영역이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경희생과 ‘스마트홈’ 출시표

서로 다른 브랜드 가전제품을 하나의 허브로 제어 통신사 서비스 가입 없이 최대 5명 동시 접속 가능

한경희생활과학은 10일 집안의 모든 가전 제품을 음성과 터치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한경희스마트홈’을 출시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이날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서울에서 출시회를 열고 한경희 대표가 직접 설명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집안 모든 것을 토털케어하는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는 중요한 행사”라며 “집안 모든 가전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이 전국 모든 가정에 스마트한 세상을 열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경희스마트홈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플랫폼과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우리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8개의 IR 센서가 360도 모든 각도에서 IR 신호를 전송해 어떤 브랜드의 가전도 스마트한 최신 가전처럼 컨트롤 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5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한경희스마트홈에는 60여만개의 리모콘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리모콘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습하기 기능을 지원하여 모든 브랜드의 가전을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해 음성인식으로 집안의 가전들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며 구글 음성 엔진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없이 휴대폰으로도 음성명령이 가능하다.

한경희스마트홈은 순수 국내 제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및 해킹에도 안전하며 한경희스마트홈 설치 기



사가 무료로 방문, 플랫폼과 앱 설치 및 사용법을 직접 교육해 가전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주부나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경희스마트홈 앱은 한경희스마트홈 플랫폼과 함께 스마트라이프를 보다 손쉽게 만들어준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외부 침입과 같은 비상상황이 감지될 때는 즉시 알림을 전송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대표는 “한경희스마트홈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라며 “IoT가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도 간편하게 스마트홈을 구축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스마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경희생활과학은 한경희스마트홈 출시 기념으로 티문에서 한경희스마트홈 플랫폼과 함께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인기 상품인 물결레정수기, 스텐다리미를 디지털 데이가 특가로 판매한다.

이재훈 기자 yes@

5G 보급폰 조기 출시 전망

▶1면서 계속

KT는 이미 내부적으로 공격적인 카드를 준비했다. 갤럭시A 5G 모델의 경우 국내 물량 50%를 확보해 1위 탈환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V60도 초도 물량 5만 대 이상을 확보해 가입자를 빠르게 유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KT는 또 다음 달 갤럭시 노트10의 전용 컬러(레드) 모델로 5G 여성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갤럭시10 전체 물량 중 전용 컬러 모델을 30~40%까지 확보해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11일 5G 상용화 서비스가 100일째를 맞았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이통사들은 100일 동안 5G 가

입자를 140만 명을 유치했다. 국내 5G 시장은 이통 3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점유율 42%로 1위인 SK텔레콤은 지난 달 말 가입자 60만 명을 유치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박빙의 차로 2위와 3위를 기록 중이다.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 점유율이 29%로 연말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칼퇴족 주목한 유통가... '6시 마케팅' 총력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유통업체가 '칼퇴' 직장인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센터에서는 저녁 시간대 20~30대 직장인 대상 강좌를 늘리는 한편 오후 6시 이후 소풍을 노린 타임세일도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은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오후 6시 이후 초저녁 마케팅 프로모션을 대폭 늘린 '현백 바캉스'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퇴근 시간이 빨라진 직장인을 유치하기 위해 오후 6시 이후 식당가를 찾는 이용객에는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매장별로 디저트 메뉴도 무료로 증정한다. 또 백화점 내 이벤트를 저녁 시간대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압구정본점 등 5개 점포에서는 '루프탑 비어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저녁 시간대 직장인 고객을 노린 '타임세일'도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은 행사의 일환으로 점포별로 오후 3~5시에 진행되던 패션 상품군 타임세일 행사를 오후 6시 이후로 옮기고, 행사 규모 및 횟수도 50% 이상 늘릴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주 52시간 근무 정착에 따라 올들어 1~6월 저녁 6시 이후 문화센터 강좌수를 전년 대비 20% 늘렸다. 실제로 직장인 대상 강좌를 확대한 결과 올해 봄/여름 시즌 문화센터를 수강한 고객들의 연령대 비중은 30대가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가 25%, 40대가 15%를 차지했다.



52시간 근무 2030세대 타깃 현대백 패션상품 타임세일 등 초저녁 마케팅 '현백 바캉스' 롯데·신세계·갤러리아백은 6시 이후 문화센터 강좌 확대

다. 백화점을 방문하는 20대 전체 고객에 비해서는 10.2%가 높고, 30대보다는 5.4%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금융·방송·교육 등)'의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따라 2030세대를 위한 문화센터 가을/겨울 학기 강좌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장혜빈 롯데백화점 문화이벤트 팀장은 "앞으로

도 퇴근 시간대와 주말을 이용해 2030세대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최근 저녁 시간대 문화센터 강좌를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와 갤러리아는 올해 상반기 6시 이후 직장인 대상 강좌를 각각 45%, 15%가량 확대했다. 강좌의 대부분은 필라테스와 요가, 사진촬영, 그림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이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재테크 등 직장인들의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주부와 아동 위주로 운영되던 대형마트 문화센터도 수강생 변화가 눈에 띈다.

홈플러스는 최근 문화센터 강좌를 아동 중심에서 성인 수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직장인 워라밸' 강좌의 경우 올해 봄학기 수강 고객은 34만8400명으로 작년 봄 수강생 수(31만7200명)보다 9.8% 신장했다. 특히 전국 13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 풋살파크의 경우 당초 아동을 위한 시설로 마련됐으나 평일 저녁 퇴근 후 즐기는 '넥타이 부대'가 늘면서 이용객수가 전년 대비 15% 가량 증가했다.

롯데마트도 최근 문화센터의 인기 강좌를 퇴근 시간대로 이동시키고 있다. 롯데마트의 인기 강좌로는 △바른 자세 운동 △소도구 필라테스 △핵심근 다이어트 △송댄스 △캘리그래피 등이 꼽힌다.

남주현 기자 jooh@

'포장김치'도 내 취향대로 지역별·숙성도별 세분화

보쌈요리 특화 김치 등 출시

포장김치 제조사들이 김치를 지역별, 숙성정도, 곁들이는 요리 등에 따라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취향저격'이 나왔다.

김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획일화된 양산형 김치의 차별화 경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닐슨데이터에 따르면 포장김치 시장은 2017년 2128억 원에서 지난해 2523억 원으로 18% 이상 성장했다. 전체 포장김치 중 배추를 포기째 담가 만드는 '포기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은 보쌈요리에 특화된 '비비고 보쌈김치'를 10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비비고 보쌈김치'는 집에서 수육 등 다양한 고기와 함께 전문점 수준의 보쌈요리를 즐길 수 있는 김치로 보쌈김치 특유의 매콤달달한 맛을 냈으며 무말랭이를 넣어 아삭한 식감이 살았다.

종가집은 숙성도에 따라 구분한 김치를 최초로 선보였다.

그동안 시판 포기김치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의 중부식김치와 풍부한 감칠맛의 전라도식 김치 등 맛으로만 구분해 판매돼왔다.

대상이 자체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김치를 취식하는 소비자 중



30%는 생김치를, 70%는 숙성 김치를 선호하며, 실제 소비자들은 김치 구매 후 본인이 선호하는 숙성도에 따라 바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 2종은 '생생아삭김치'와 '톡톡아삭김치'로, 숙성도에 따라 각각의 조건에서 최적의 김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워홈은 주문 후 김치를 담그는 맞춤형 김치로 소비자의 니즈 충족에 나섰다. 아워홈은 주문 후 제조를 시작해 받았을 때 생김치로 즐길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된 맛을 즐길 수 있다. 또 배추의 푸른 잎 부분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청잎김치를 선보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워홈은 나트륨을 줄인 김치도 선보이고 있다. 나트륨 저감 공법을 도입한 '아워홈 손수담은 아삭 포기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374mg 수준으로 시중 김치 대비 나트륨을 50% 이상 저감했다. 윤희희 기자 yhh1209@



무더위 몸보신하세요

이마트는 초복(12일)을 앞두고 11일부터 17일까지 '여름 미식회'를 테마로 민어, 전복, 장어 등 다양한 프리미엄 보양식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보양식인 국산 민어회는 중량에 따라 2만9800원(280g 내외/팩), 1만9800원(180g 내외/팩), 국산 전복은 1만9800원(대 5마리, 소 4마리), 1만5800원(중 5마리, 소 4마리)에 각각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호텔신라 '상생 프로젝트' 23호 식당 오픈

제주 헤자분식, 면 요리 맛집 변신

김밥, 떡볶이를 팔던 작은 분식집이 신라호텔의 요리법을 전수받아 '면 요리 맛집'으로 거듭난다.

호텔신라가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 프로젝트 '맛있는 제주만들기'가 10일 오전 23번째 재개장식을 열었다. 이번에 재개장한 23호점 '헤자분식'은 회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이색적인 면 요리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남기 JIBS 대표이사, 최창현 호텔신라 호텔&레저부장, 오상훈 제주신라호텔 총지배인, 고낙천 신라면세점 제주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재출발하는 '헤자분식' 영업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5월 '맛있는 제주만들기' 23호점으로 선정된 (구) '말다김밥'은 제주신라호텔과 신라면세점에서 메뉴 조리법과 손님 응대 서비스 컨설팅, 주방 설비 시설을 지원받아 영업주의 이름을 딴 '헤자분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했다.

'헤자분식'은 영업주 고혜자(66) 씨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주 메뉴로 운영해 온 8.5평 규모의 영세한 분식점으로, 역대 '맛있는 제주만들기' 선정 식당 중 평수가 가장 작다.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해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맛있는 제주만들기'를 만났고, 두 달 간의 요리법 전수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헤자분식'은 재개장에 맞춰 △등갈비 마라면, △수제어묵라면, △돈가스 쫄면 등 신메뉴를 선보였다. 호텔신라는 '헤자분식'이 제주 핵심관광인 노형오거리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면 요리를 중심으로 신메뉴를 개발했다. 또한, 테이블이 4개뿐인 작은 식당인 점을 감안해 회전율이 높고 테이크아웃(Take-out)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등갈비 마라면'은 최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식 향신료 '마라(麻辣)'를 이용해 차별화했다. 마라의 열큰함에 해산물과 돼지고기로 만든 특제 양념소스가 어우러져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신라호텔 셰프의 노하우로 등갈비를 면 위에 올려 든든한 한끼를 완성한다.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방송사 JIBS와 함께 추진해 온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는 관광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상생 프로그램이다.

박미선 기자 only@



패션 만난 장수식품 "넌 먹니? 난 입는다"

오뚜기 카레·천하장사 소시지 등 의류 컬래버

수십년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장수식품을 입는 시대가 왔다.

메로나, 천하장사 소시지, 오뚜기카레와 케첩, 초코파이 등은 장수 브랜드이자 스테디셀러라는 공통분모를 지녔다. 여기에 다 최근 패션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의류와 슈즈로 재해석된 브랜드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겼다. 먹는 식품에서 입는 식품으로 진화한 격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과 오뚜기는 오뚜기의 인기 제품들을 의류로 선보였다. 한섬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웜은 오뚜기 CI와 인기 브랜드를 활용한 디자인의 '시스템웜X오뚜기' 한정판 의류 9종을 온라인몰 '더한섬닷컴'

에 출시했다. 이번 협업 제품은 티셔츠 7종과 셔츠 2종으로 오뚜기 CI와 '3분 짜장'·'3분 카레' 등 대표 제품을 디자인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도 이를 기념해 트러플향을 첨가한 '3분 짜장웜'과 크림으로 부드러움을 더한 '3분 카레웜'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한세엠케이의 TBJ는 진주햄 소시지 브랜드 '천하장사'와 손잡으면서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뉴트로 열풍을 탄 천하장사티셔츠(사진)는 11번가에서 한정 판매한 결과 1시간 30분만에 350개가 완판됐다. TBJ와 진주햄은 한정판 소시지 패키지를 선물하는 SNS 이벤트, 나만의 '인싸템'을 #TBJX천하장사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21일까지 진행한다.

오뚜기와 진주햄보다 앞서 패션계의 러브콜을 받은 브랜드도 있다.

빙그레는 2017년 '휠라'와 협업해 메로나 슈즈와 티셔츠를 선보였다. 휠라와 메로나의 협업 제품 중 코트디리크스와 드리프터는 초도몰량이 완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빙그레는 '스파오'와 함께 메로나, 봉어싸만고 등 아이스크림 제품을 디자인한 티셔츠를 내놓기도 했다.

초코파이 하나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오리온은 편집매장 '비이커'와 함께 초코파이를 테마로 한 의류로 화제를 모았고 롯데제과도 조스바 의류를 질바리스트어트에서 선보였다. 농심도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와 협업해 새우깡 잠옷을 내놨다.

이밖에도 좋은사람들의언더웨어 '보디가드'는 동아오츠가 '데미소다'의 과즙 이미지를 활용한 '프레쉬 데미' 컬렉션을 선보였고 SPC그룹의 '쉐이크백'은 신세계 분더샵 '케이스터디'와 협업해 티셔츠, 모자, 가방 등을 선보였다. 윤희희 기자 yhh1209@

신라젠·메지온·헬릭스미스, 개발 신약 '옥석' 가린다

신라젠 '펙사벡·넥사바' 병용 투여 무용성 평가 8월에 결과
메지온 '유데나필' 이달 말, 헬릭스미스 'VM202'는 10월
글로벌 임상 3상 성과... 신약개발 상용화 성패 여부 주목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신약 연구·개발(R&D)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다. 신라젠과 메지온, 헬릭스미스가 글로벌 임상 3상 성과를 줄줄이 내놓으며 상용화 가능성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결과 발표를 조금씩 연기하며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 중 주목도가 가장 높은 신라젠은 간암 적응증에 대한 면역항암제 '펙사벡'과 표적항암제 '넥사바'의 병용 투여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이 임박했다.

신라젠은 애초 올해 상반기 내 무용성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임상 진행 과정에서 시기를 8월로 미뤘다. 190명의 환자 데이터에 기반을 둔 무용성 평가는 개발 중인 약이 치료제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임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

카누맵'의 임상 3상이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사례에서 보듯,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는 펙사벡의 가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신라젠은 기존 치료 경험이 없는 1차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넥사바 투여 이전 5주 동안 펙사벡을 투여받는 투여군과 처음부터 넥사바만을 투여하는 대조군과 비교하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넥사바 투여 전 펙사벡을 투여할 경우 넥사바 단독 투여보다 얼마나 더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전 세계 20개국, 140개 임상수행기관에서 6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라젠은 2020년까지 임상 3상을 마치고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다. 시장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센터는 펙사벡의 매출이 유럽에서만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바이오기업 임상 3상 파이프라인

| 기업 | 파이프라인 | 적응증 | 진행 과정 |
|-------|-------|------------|----------------------|
| 신라젠 | 펙사벡 | 간암 | 3분기 병용투여 무용성평가 발표 |
| 메지온 | 유데나필 | 폰탄수술환자 치료제 | 7월 말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
| 헬릭스미스 | VM202 | 당뇨병성 신경병증 | 4분기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

신라젠 관계자는 "임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R&D 결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상 3상을 비롯한 모든 파이프라인은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메지온은 7월 말께 폰탄수술 환자의 합병증 치료제 '유데나필'의 임상 3상 주요 결과(톱 라인) 데이터를 내놓을 예정이다. 임상 3상은 폰탄수술을 시행한 12~18세 단심실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총 30개 병원에서 26주간 진행됐다. 상반기로 예정됐던 톱 라인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임상 실패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근 박동현 메지온 대표가 직접 나서 "소문을 믿지 말라"며 일축했다.

유데나필은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할 계획

이다. FDA 허가의약품으로 지정된 유데나필 우선 심사(최장 6개월 이내 검토)가 적용되면 내년 상반기 중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희귀성 소아질환을 적응증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하면 일반 신약보다 2년이 긴 7년의 독점기간이 부여된다. FDA를 통과하면 유럽에서는 추가 임상 없이 시장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탄수술은 심실이 한 개만 있거나 한쪽 심실이 매우 작은 선천적 심장기형 어린이가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수술 중 마지막 단계의 수술이다. 폰탄수술 환자는 정맥의 힘으로만 폐동맥으로 혈액이 순환하면서 정맥 압력이 높아져 간경화나 간암 등이 발생하고 혈전이 생겨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합병증으로 생존 확률이 낮다. 그러나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신약 개발이 절실하다.

유데나필은 폰탄수술 환자의 폐혈관 압박을 감소시키고 폐혈류를 개선하는 등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 미국을 기준으로 폰탄수술 환자 수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폰탄수술 치료제 가격은 최소 6만 달러(약 7000만 원)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 개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VM20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는 10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회사는 올해 4월 임상 3상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FDA와 미팅 후 추적관찰 기간을 3개월 연장, 종료 시점을 늦췄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말초 감각신경 합병증이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 중 하나로 초기에는 양쪽 발이나 손이 저리거나 시리고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진다. 미국의 당뇨병 환자 중 30~50%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치료제 시장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헬릭스미스가 VM202를 계획대로 상용화하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우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신약강국 되려면 법 체계 기반 양질의 빅데이터 필요”

메디컬 줌인

한현욱 차의과대 교수

4차 산업 기술 기반 신약 경쟁 질적 데이터 확보 여부 판가름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는 "한국이 신약강국 도약을 위해 질적 데이터와 인재 양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같이 꼽았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경쟁이 가능하려면 질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0일 경기도 성남 차바이오컴플렉스 연구실에서 만난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는 한국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같이 꼽았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핵심인 데이터, 그중에서도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들은 약물 가상 탐색, 독성 및 부작용 예측, 신약 재창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유전체 및 오픈액 데이터(유전체, 단백질체 등 생물학적 정보를 통칭)에 기반한 정밀의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잠재적인 약물 타겟의 수도 기존 약물의 수백 개 유전자에

서 최소 500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활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최근 사업을 포기한 미국 IBM의 신약개발 전문 AI인 '왓슨 포드릭 디스커버리(Watson for drug discovery)'를 예로 들었다. 그는 "왓슨 포드릭 디스커버리는 논문(이론)을 학습시킨 데이터가 걸림돌로 작용해 중단됐다"라며 "가설이 아닌, 현장에서 쓰이는 살아 있는 데이터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대로 된 신약개발을 위해선 이러한 이론이 아닌 현장 데이터들이 활용돼야 하지만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숙제다. 한 교수는 "비식별 데이터의 경우 환자보호 측면에서는 유용하겠지만 유전체나 라이프로그 데이터(생활습관이 반영된 건강데이터) 등과 연결시키지 못해 결국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국, 싱가포르 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사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나라들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과 함께 닥친 또 다른 문제는 전문가의 부재다. 한 교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컴퓨터공학과 제약바이오 및 임상 등 과학과 의학이 융합된 분야로, 현재 전문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업들도 인재 확보가 쉽지 않아 대학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교수는 국가 지원 교육의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가 지원으로 진행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6개월짜리 단기 교육과정만 준비하다"며 "단기 교육 코스에 미취업자들이 몰려 맛보기 식 강의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학, 바이오 분야는 내공이 필요한 학문인데 스펙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만 잔뜩 배출되고 있다"면서 "임상, AI, 빅데이터 등 2~3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부광 '콘테라파마' 30억 원 투자 유치

LID 신약 유럽 임상 2상 속도 중추신경계 전문 개발사 도약

부광약품은 덴마크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메디치인베스트먼트로 시리즈A에서 30억 원을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콘테라파마는 이번 자금 유치를 통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JM-010'의 임상 2상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테라파마는 부광약품이 2014년 인수한 덴마크 소재 중추신경계(CNS) 전문 제약사다.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JM-010'은 파킨슨병 환자가 주로 복용하는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운동증(LID)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후보물질이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효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복용 시 불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무도증이나 근육긴장이상증 등과 같은 이상운동장애가 나타난다.

현재 LID 시장 규모는 미국 기준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며, 치료제로 아다마스파마 슈티컬스의 '고코브리(성분명 아만타딘)'이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부작용 등의 이유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콘테라파마는 부광약품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념증명임상(POC), 독일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해 환자에게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현재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2상 임상을 위한 개시모임을 진행, 2년 내 종료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허가 신청 전 미팅(pre-IND)을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펀딩을 시작으로 콘테라파마는 CNS 전문개발회사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콘테라파마를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지역과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종근당, 印尼 첫 할랄 인증 항암제 공장 준공

올 하반기 본격 상업생산 돌입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종근당이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 인증 항암제 공장을 준공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근당은 9일 인도네시아 차카랑에서 합작법인 CKD-OTTO의 항암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CKD-OTTO 항암제 공장은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1만2588㎡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EU-GMP 수준

의 시설을 갖췄으며 연간 약 16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 종근당의 제품 생산기술과 운영시스템을 이전해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항암제 젠시타빈과 파클리탁셀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주요 항암제의 추가 품목허가를 획득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70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8조 원에서 2023년 약 13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 판매하려면 생산설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CKD-OTTO' 항암제 생산 공장 전경.

비를 갖춘 현지회사와 협력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의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항암제 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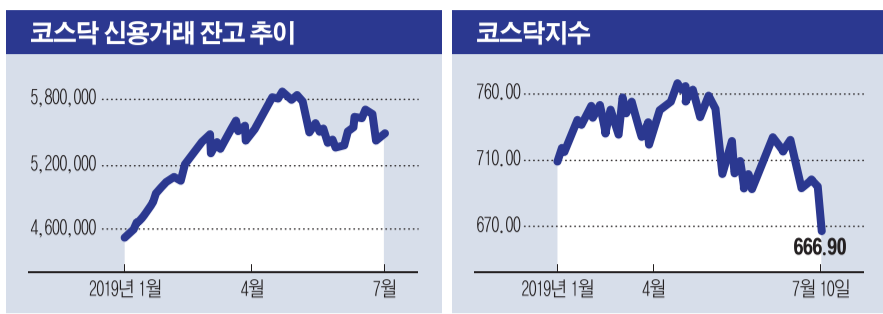
1300억 원 규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종근당의 기술로 개발한 항암제를 현지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종근당은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항암제 공장을 20억 인구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을 전략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큰 기회의 시장"이라며 "항암제 공장이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올해를 종근당의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빛내서 주식 산 개미 늘었다

연초 4.5兆서 5.5兆로 대폭 늘어
최근 지수 고점 대비 100P 이상 ↓
반대매매 물량 등 추가 하락 우려



코스닥 시장에서 빛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연초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용용자 잔고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반대매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일 기준 코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5조4943억 원이다. 연초(1월 2일) 4조5488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

히 주목할 대목은 전체 신용거래용자 기준 유가증권시장 내 신용거래는 소폭 줄었지만, 코스닥 신용거래만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용자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시가

호황일 때 신용매수를 통한 레버리지성 자금은 상승 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4월 코스닥 지수가 770선에서 고점을 찍을 당시 코스닥 신용거래 잔고도 함께 증가해 같은 달 25일 기준 연중 최고치인 5조886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조정국면에 돌입했지만, 신용거래 잔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지수 하락이 이어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해 시장의 추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신용용자로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걸 의미한다.

10일 기준 코스닥 내 신용비율 상위종목으로는 영인프론티어(13.18%), 중앙백신(12.88%), 알에프텍(11.93%), 삼본전자(11.45%), 제일바이오(11.35%), 인콘(10.67%), 엘비세미콘(10.52%)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코스닥 내 잔고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업은 에프엔에스테크, 이즈미디어, 에스넷, 파워넷, 제일바이오, 티로보틱스, 제이티, 디알텍, 아이앤씨 등이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코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 늘어나는 건 건전한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반대매매가 속출하는 등 연말에 신용용자 잔고가 꽤 회수된 상태에서 울들어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닥 신용거래용자 잔고) 1조 원 증가한 게 전체 시장에 비하면 그리 큰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ljh@

“금감원 CPA 2차시험 유출, 아니다”

기출문제·교재는 일반적 내용... 의혹 전면 부인
실제 시험 출제위원과 모의고사 출제자도 달라

금융감독원이 10일 최근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금감원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출제 과정을 보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박권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을 열고 “특정 대학에서 실시한 특강 내용이 출제 문제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특강은 2차시험 출제위원이 확정되기 전인 4월 19일에 특정 대학 고시반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며 “제공된 특강자료 역시 최근 변경된 제도나 감사 기준 등 제목만 나열된 수준이어서 문제가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백브리핑은 지난주 말 불거진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이다. 현재 회계사 시험 준비생이 모이는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S대학교의 특강 자료에 실린 내용이 실제 출제된 시험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특정 대학 모의고사 출제자가 해당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린다’는 글이 게시돼 5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에 동의했다.

특정 대학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문제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2개 문제는 실제 시험문제와 문는 내용과 출제 형태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기출문제 및 관련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 내용이고 질문과 표현 방식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출제위원과 모의고사 출제자가 같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 출제위원과 모의고사 출제자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심의위원은 “공인회계사시험 문제는 특정 출제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목당 다수의 출제위원이 논의하고 검토 요원의 의견을 반영해 출제하는 등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유출 논란을 계기로 시험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미비점이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험 채점 과정을 거쳐 8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유혜림 기자wiseforest@

日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악재에 불안감 커져 옵션만기일 앞둔 外人 수급 ‘주목’

국내 증시가 대내외 악재로 연일 휘청이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최근 선물매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7월 옵션만기일을 전후해 외국인 동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758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주요국 통화 완화정책 기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달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고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외국인들의 ‘Buy KOREA’는 이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3427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키우며 불안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 시장

에서 이달 들어 8198계약(5632억 원)을 내다팔았다. 지난 달에는 21193계약(1조 4510 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도가 단순 헤지 목적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거시적인 시장 우려와 이에 따른 실제 수급적인 움직임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선물의 장기 하단까지는 1만5000 계약 이상의 여유가 남아 있어 극단적인 매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옵션만기일(11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수급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한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매도에 따른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강력한 선행성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매매 방향성을 참고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갸마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호를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에 가깝고 느끼고 싶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경남제약 인수 2개월 만에 삼보저축銀 인수 결정

라이브플렉스, 빨라지는 M&A 행보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M&A)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 제약 인수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지 불과 2개월 만에 삼보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라이브플렉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유류도소매 업체인 태일 지분 51.19%(34만3026주)를 302억1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 양수 예정 일자는 오는 9월 30일,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태일 인수에는 라이브플렉스의 계열사인 씨티젠도 함께하기로 했다. 씨티젠은 129억4900만 원을 들여 태일 지분 21.94%(14만7013주)를 같은 날 양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라이브플렉스와 씨티젠은 태일 지분 73.13%를 갖게 된다.

라이브플렉스가 인수하는 태일은 1995년 부동산임대와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 천일고속 오너 3세가 소유했던 기업이다. 작년 연결기준 매출 7억 원에 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납입자본금은 67억 원이지만 자본총계가 11억

원에 불과해 일부 자본잠식 상태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432억 원의 현금을 들여 태일을 인수하는 이유는 자회사 삼보저축은행 때문이다.

삼보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된 이후 1997년 한일유통(지분율 50.39%)에 인수됐다. 현재 태일이 보유한 삼보저축은행 지분율은 49.11%다. 한일유통은 태일의 100% 자회사인 동시에 태일 지분 26.86%를 갖고 있어 상호출자 관계에 있다. 라이브플렉스(씨티젠)가 천일고속 오너 3세 지분을 인수하면 태일→한일유통→삼보저축은행 등을 모두 갖게 되는 구조다.

삼보저축은행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10여 년째다.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축은행 중 마지막 남은 매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매도 희망가격이 높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 알려진 매각가는 500억~6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삼보저축은행의 순자산가치(자본총계)는 147억 원, 부채비율은 100.5%다. 서울 봉천동 소재 본사 토

지와 건물, 남양주 소재 토지의 장부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조정하면 자본총계는 421억 원으로, 자산총계는 569억 원으로 늘어난다. 영업실적을 보면 1분기에 4000만 원의 영업수익에 3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단기간 모회사로의 실적 기여 효과는 낮을 전망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상 영업 재개 시 과거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병진 회장은 지난 5월 라이브플렉스-바이오제네틱스-씨티젠-위드윈인베스트먼트 4개사를 통해 경남제약 지분 26.92%를 확보했다. 2006년 라이브플렉스를 시작으로 2015년 씨티젠(옛 씨티엘), 2017년 바이오제네틱스(옛 유니더스)에 이어 작년 11월에는 씨티젠을 통해 대원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프리미엄’·‘펫 가전’ 라인 강화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대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신일산업

신일산업이 14일 창립 60주년 맞는다. 2·3분기 성수기 효과와 함께 프리미엄 라인의 가전 출시와 신사업인 펫 가전 사업 강화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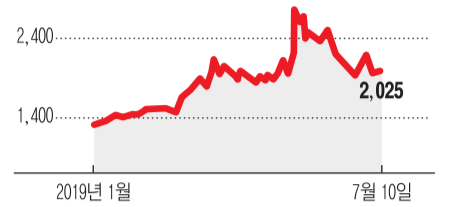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선풍기를 비롯한 냉방가전과 난방가전 등 계절가전 매출 비중이 70~80%로, 1분기는 상대적으로 비수기다. 지난해 1분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납품 건이 일부 포함돼 평년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펫 가전 브랜드 ‘퍼비’의 시장 반응은.

“펫 가전 브랜드 ‘퍼비(Furby)’는 2017년 12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스파&드라이’와 ‘자동발세척기’를 출시해 펫 가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전국 스타필드 내에 있는 몰리스 펫샵에 입점해 있다. 시장 진입 단계로서 제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신일산업 주가 (단위: 원)



-올해 실적 전망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매출액 목표는 약 20% 성장한 2000억 원이다. ‘위대한 여정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잡고 백년대계를 위해 파트너사와 함께 종합가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개발 중인 신사업이나 신제품은?

“종합가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선풍기 회사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해 ‘프리미엄 라인의 가전’을 다수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펫 가전 브랜드 ‘퍼비’의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반려견 중심에서 반려묘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오스코텍 美 자회사 ‘제노스코’

내년 코스닥 입성 목표 준비 돌입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내년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 과정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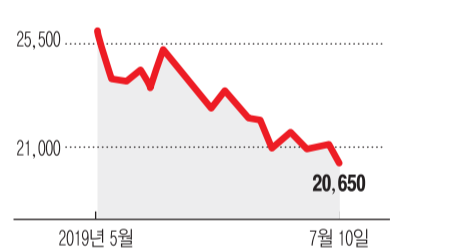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10일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제노스코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초 NH투자증권을 주관사를 선정했고, 관련해서 실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노스코는 모회사 오스코텍이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유한양행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5.6%를 취득한 바 있다.

제노스코는 유한양행과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공동 개발한 회사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안센에 해당 신약물질을 총 1조4000억 원에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제노스코와 모회사 오스코텍이 기술수출 금액, 경상기 술료의 40%를 지급받는 구조다.

회사 측은 “다양한 상장 요건을 고려하고

오스코텍 주가 (단위: 원)



있다”며 “내년 예비상장심사 청구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혈소판 감소증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 중인 SYK 키나제 억제제(SKI-O-703), 급성골수성백혈병(AML)으로 임상 1상 진행 중인 FLT3 억제제(SKI-G-801) 등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정희 기자 ljh@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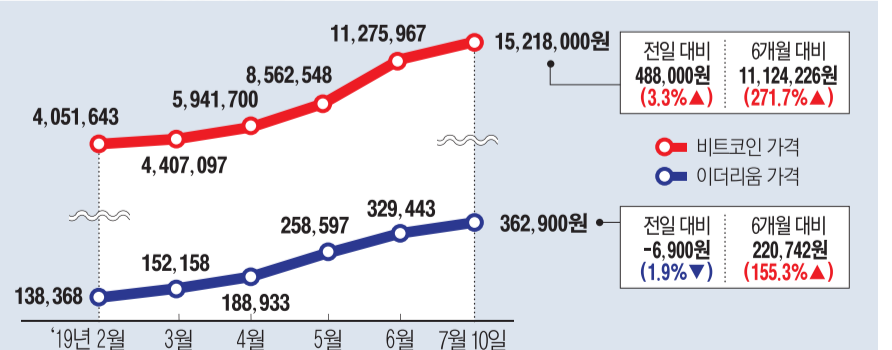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프랜차이즈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액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7월 10일 18: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489,700 | -8,400 (1.7%▼) | 모네로 | 116,400 | -2,900 (2.4%▼) |
| 리플 | 465 | -7 (1.5%▼) | 비트코인골드 | 32,840 | 1,080 (3.4%▲) |
| 라이트코인 | 139,500 | -3,000 (2.1%▼) | 이더리움 클래식 | 9,120 | -370 (3.9%▼) |
| 대시 | 199,700 | 700 (0.4%▲) | 퀀텀 | 5,475 | -320 (5.5%▼)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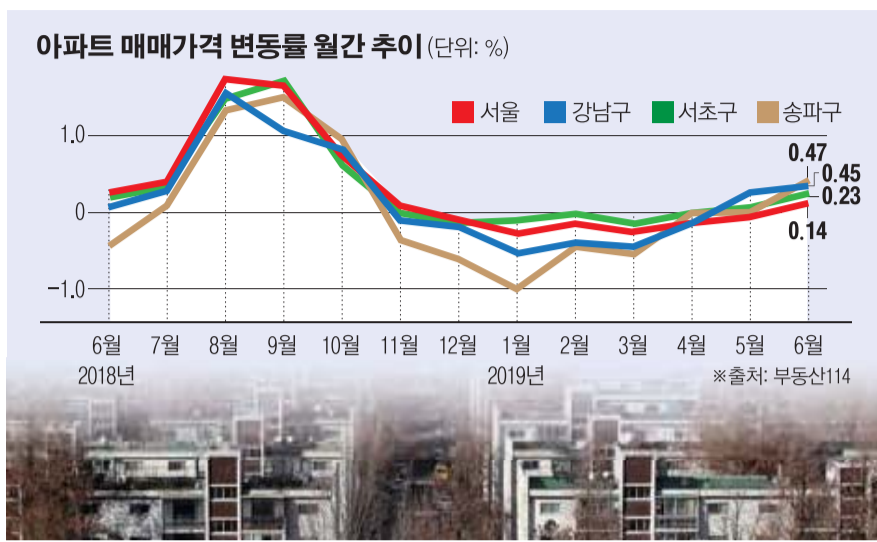
〈분양가 상한제〉

더 센 분양가 규제에... 강남 재건축 '올스톱'

선·후분양 일괄적용 가능성에
후분양 추진했던 단지들 '멘붕'
초기 사업장도 "차라리 중단"
매수 문의의 줄며 시장 관망세로

서울 재건축 시장이 멈춰섰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사업을 잠정 중단하려는 분위기가. 매매시장도 매수 문의가 줄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후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후분양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더 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면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HUG의 심사 기준보다도 낮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상아2차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후분양을 선택했던 단지들이 앞다퉈 선분양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을 따져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 신반포4지구 등 후분양 검토에 들어갔던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규제가 더 나오기 전에 선분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잖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송파구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검토 발언 이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확정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볼 뿐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

론했다. 광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된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송파구 신천동 E공인중개사는 "전화도 없고 매입을 문의하던 분들도 지켜보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호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H공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나올 분양 물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에는 정책의 파장이 아직 크게 외당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위축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지희 기자 jhsseo@

현대건설 3조2000억 규모 사우디 초대형 플랜트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2000억 원짜리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라코 다란 본청에서 총 27억 달러 규모(약 3조2000억 원)의 '사우디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 패키지 12'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2개의 공사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라코가 발주한 플랜트 공사로 사우디 동부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잔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및 원유를 처리하기 설비를 짓는 사업이다. 패키지 6은 총공사 금액이 약 14억8000만 달러(약 1조7189억 원) 규모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다.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패키지 12는 2500MMSCFD(1일당 백만 표준 입방 피트)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전력과 용수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간접시설 설치 공사다. 공사금액이 12.5억 달러(약 1조 4570억 원) 규모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입찰 평가 과정에서 글로벌 유수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발주처인 아라코로부터 현대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오늘 뒤늦은 입주자 모집 공고 "혼인기간 조건 있는데... 일정 늦춰 자격 박탈" 불만

LH "절차상 지연" 원론적 답변만
서울의 첫 신혼희망타운인 양원지구의 입주자 모집 과정이 순탄치 않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양원지구(S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일로 예정됐다. 이날 중랑구 용마산로에서 견본주택도 개관할 계획이다. 양원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신혼희망

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늦어져 예비신청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기는 올해 2분기다. 지난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LH는 지난달 26일 돌연 입주자모집공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 사유도 자세한 설명 없이 "내부 사정으

로 인해 부득이 7월 중 공고(예정)로 변경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일정 연기 공지가 이후 약 2주 만에 이달 11일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입주자모집공고 지연된 배경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늦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이 바뀌면서 자격이 박탈된 신혼부부들의 불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위치도



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7월로 넘어가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들은 청약도 못해 보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구성현 기자 carlov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자투리땅이 72시간 만에 쉼터로 재탄생

서울시, 2012년부터 66곳 만들어...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 국토부장관상

내달 22일부터 관훈동 등 7곳 조성

서울시가 버려진 자투리땅을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 쉼터로 재탄생시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 전역의 자투리땅 66개를 재창조한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서울시만의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 경관을 바꾸었다.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삶을 바꾼다는 것을 시민생활 공간 속에 실천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처음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이 기존 사업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용하는 등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은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자투리땅에서 『』를 찾아라!'라는 미션으로 최종 선정된 7개 팀이 종로구 북인사마당에 위치한 관훈동 가로 쉼터 등 서울 곳곳의 7개 자투리땅을 8월 22일 오후 12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 단 72시간 동안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한편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도시재생 및 생활SOC 분야 1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자 만든 대회다. 설경진 기자 skj78@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송파구 송파동 가로쉼터. 사진제공 서울시



성노예 문제 사과하라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8년 구형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증거위조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구형한 7년보다 총 형량은 1년 늘었다.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檢 '파산 저축銀 뒷돈 받고 관리' 예보 직원 기소

연대보증 채무 줄여줘

파산한 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0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씨가 해외에 거주하는 A 씨로부터 보증채무조정 관

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 등의 경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가 현재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않아 국제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이체) 부분도 있고 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건도 많아 (공여자 진술 없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핑은 죽도해변 힐링은 안목해변

빅데이터 추천 맞춤 해수욕장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 K 씨는 올 여름휴가 기간에 친구들과 해수욕장으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고민에 빠졌다. 평소 윈드서핑, 스노쿨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는 그는 어느 해수욕장을 가야 가장 잘 놀 수 있을지 몰라 헤맸다. 그에게 가장 좋은 해수욕장은 어디일까?

한국관광공사는 10일 소셜미디어와 전국 151개 해수욕장 방문 관광객의 통신 빅데이터,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테마별 맞춤 해수욕장을 추천했다.

◇ 2030은 양양 죽도해변, '힐링'은 강릉에서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4%)이 최근 1년간 해수욕장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식도락(71.1%), 해수욕(39.0%), 산책(37.1%)이 그들의 발길을 끌었다.

2030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수욕장은 양양 죽도해변으로 나타났다. 31.4%가 서핑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은 죽도해변을 찾았다.

연인과 즐기기에 좋은 해수욕장은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꼽혔다. 친구, 가족, 연인과 '힐링'하기 좋은 곳은 강릉 안목해변이었다.

제주 협재해수욕장은 어떤 목적으로든 찾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힐링', '드라이브', '스노쿨링' 모두 즐기기에 좋은 평이다. '신나는', '깨끗한', '맛있는' 등이 협재해수욕장을 찾는 이유였다.

◇ 부산·충남으로 쏠리는 여름철 피서객들 =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지역은 충남과 부산이다. 지역별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에 대한 통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수욕장 유동객 24.7%가 충남 지역을, 23.4%는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해수욕장의 방문객 연령 분석 결과 죽도해변의 20~30대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김소희 기자 ksh@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7 VOL. 05

다시 빛을 반짝이게 하며 "평생 일귀 좋은 꿈, 나누며 살고 싶다"

건강스런 일터에서 현대에게 필요한 '영년후생'을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영년후생'을

이제 중장년 인생의 최후를 자유여행기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scent

COVERSTORY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PART1. 기억 속 향훈 - 까마득한 남새가 새삼 그립습니다

PART2. 남새에 관한 설문조사 - 당신의 남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3. 약취 발생시키는 질환과 해결법 - 물·일·말, 약취의 근원론?

PART4. 일 남새 고민 - 귀취 집으러다 만나는 소통 공간

PART5. 일상 속 약취 솔루션 - 상쾌한 여름을 위한 천연 탈취 DIY

PART6. 향기의 품격 - 한태사회는 향기가 고르다

PART7. 인생의 내음 - 향기를 부르는 이야기들

플레이팅 시니어 위협하는 심장병

인간의 생활활동이 정지되는 상황, 즉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심장이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병이라고 말하기 모호할 정도다. 심장병 중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 질환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학과 장성원(장소)·최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귀촌 별생각 없었던 귀촌이 별나게 즐겁습니다

별墅 생각과 공리를 더하고도 망설이게 되는 게 귀촌이나 귀농이다. 그러나 김석봉 씨는 별생각 없이 시골로 왔다. 무슨 성취처럼 영롱한 오랑중의 현물이 그를 이끈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나 깨나 귀촌을 숙원으로 여긴 바가 없었으니 하필 추미진 산골로 따라가는 계기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여하튼, 별 생각 없이 귀촌한 석봉 씨는 별 탈 없이 살아왔다. 별생각이 없었으니 별 풀림도 없었을 청량지다. 사실은 별 풀림이 벌어졌다. 별墅 일이 일어나며 살아야 하는 속내가 술술 풀려나갔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시아 있는 한 인생은 인생사 미안성이다 시인 이규리

이억되고 살 거 없다 물처럼 살면 빛나거든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정열로 함박웃음 짓다 미술사 겸 영화인 조용서 씨

타박타박 신책 푸른 바다 벗삼아 걷는 여수 낭만길

하루 동안 여수를 일차에 여행하고 싶다면, 오토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공원 일대를 둘러보길 권한다. 동백숲이 가득한 오토도와 스릴 넘치는 해상케이블카, 항구 정취가 가득한 종포해방공원, 여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빅오쇼와 낭만포차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걷는 내내 여수의 비꽃빛 바다가 펼쳐지는 이 코스를 소개한다.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사에 걸맞은 맛깔, 이름하여 '고고'가게를 찾아간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산책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올레이드 사찰음식
원기회복에 도움 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마보기
김승우 변호사
내 재산은 어디로 '성년후견제도'



새로 나온 책



캔들마스터의 주식 캔들 매매법
캔들 마스터 지음 / 이레미디어 펴냄 / 2만3000원
개인투자자의 약 90%가 단타 매매 위주로 하거나 단타 매

매를 경험한다는 시장 통계가 있다.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씩 사고파는 매매는 늘 불안하고, 거래를 하면 할수록 계좌 잔액만 줄어들 뿐이다.

저자는 "더 이상 시장과 세력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조지표나 펀더멘털을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캔들만으로 차트의 흐름을 읽다 보면 캔들만으로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캔들 매매는 한 달에 몇 시간의 투자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자는 "시간적·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트가 요동치든, 경제 뉴스, 지표, 전문가가 뭐라고 떠들든 시류와 시황에 휩쓸리지 않는다"며 "그러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엄니(Mother)
권비영 지음 / 가세 펴냄 / 1만4500원
밀리언셀러 '덕혜옹주'의 작가 권비영

신작 장편소설이다. '엄니'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또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한, 이 땅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한국 사회의 '엄니'들에게 세계는 곧 가정이었다. 이들에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계의 전부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여겨졌다.

'엄니'는 이러한 역동적 한국사회를 힘겹게 살아왔으며 또한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여성의 생존사를 한 가정의 여성 3대를 통해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잘 살아가기 위해... '자아성찰' 에세이 열풍

상반기 베스트셀러 결산

헤민스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14주 연속 1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여행의 이유' 등 에세이 인기 '아가씨와 밤'·'봉제인형 살인사건' 스티ллер 소설도 강제 조정래, 대한민국 미래 조명 '천년의 질문' 인기 급상승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출간된 헤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본다는 마음가짐이 '자아 성찰 에세이'의 인기를 이끌었다. 상반기에는 스티ллер와 인문학, TV에 나온 책에 대한 관심도 두드러졌다.

영풍문고 2019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결산에 따르면,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017년 하반기 출간 이후 현재까지 사랑받는 추리소설 '봉제인형 살인사건' (다니엘 콜 지음)이다. 이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종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지난해 12월 출간과 동시에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총 14주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삶의 방향의 가치를 찾는 '자아 성찰 에세이'가 인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이 담긴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출간 즉시 수주째 베스트셀러 1위에 머무는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 '여행의 이유'는 작가가 경험한 여행의 목적과 이유를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 '여행의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출간됐음에도 상반기 종합 결산 6위를 차지했다. 책은 하반기 서점가에 에세이 열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설 분야에선 스티ллер의 강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말 출간된 기욤 뮈소의 신간 소설 '아가씨와 밤'은 그의 인기작 '파리의 아파트', '브루클린의 소녀'를 잇는 스티ллер 작품이다. 전자들에서 보여준 판타지적 요

소는 없지만 '서스펜스가 결합된 로맨스'라는 점이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스티ллер의 스테디셀러 '봉제인형 살인사건'은 2위,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기쿠 지음)은 4위에 올랐다.

상반기 서점가에는 '인문학' 바람이 다시 불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문학과 만났다. 7위에 오른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허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의 책이다.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12가지 법칙을 전한다. 50가지 철학적 사고법이 담긴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8위를 차지했다.

'미디어셀러'의 힘도 강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시 분야 중 유일하게 상반기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해당 시집은 미디어 노출 이후 흥행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미디어셀러'이다. 인기리에 종영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등장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방송 전후 한 달간 판매량 이익 60배 차이를 보였다. 연말야 방영된 소설 '세계의 끝 여자친구',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의 판매량도 급상승했다.

예스24·인터파크·영풍문고 7월 1주 종합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6월 5주 종합 베

스트셀러 순위 1위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가 차지했다. 이로써 작가 김영하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아홉 가지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인 책은 8주째 1위 자리를 지켰다.

21세기 거대 자본 속 인간 소외에 대한 현 상황을 통찰하며 새롭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한 조정래의 '천년의 질문'은 교보문고 순위에서 전주보다 2계단 뛰어 4위에 올랐다. 예스24 순위에서는 '천년의 질문' 1·3편이 모두 2·4위를 차지했다. 인터파크도서에서는 2·4·5위를 선점했다. 3권 모두 상위권에 자리해 눈길을 끈다.

프랑스 소설의 대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 소설 '죽음' 1·2편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예스24에서 1편은 5위, 2편은 7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에서는 1편은 2위, 인터파크도서에서는 1편은 3위, 2편은 6위다.

등단 후 감성적인 소설로 애독자층을 거느린 김애란의 산문집 '잇기 좋은 여름'은 출간과 함께 교보문고 종합 16위에 올랐다. 독자뿐만 아니라 소설가들도 김애란 작가와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소설가가 뽑은 올해의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던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은 한국소설 분야 순위에서 여전히 오르며 사랑받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 전화 02-325-5676 | 팩스 02-333-5980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Let's KB 환전 페스티벌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타·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바이오 개발은 긴 싸움...기업 안정성 필수”

‘생존기반 먼저’ 강조하는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

비누·샴푸·화장품 등이 전체 매출 95% 차지 ‘수익성’ 확보 당뇨병 치료제 목표...치료물질 ‘세리포리아’ 2단 배양 성공

“바이오기업에 임상 리스크는 회사 존폐 얘기가 나올 만큼 큰 이슈다. 당사는 자체 생존 기반을 확립해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주력 상품은 비누다. 이렇다할 성과 없이 미래만 바라보는 여타 바이오 기업과 달리 비누와 샴푸, 화장품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

최종백(사진) 씨엘바이오 대표는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은 초반 매출이 거의 없지만 씨엘바이오는 상품 매출로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며 “기존 바이오 기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상품들이 치료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관련 상품들 역시 회사가 보유한 세리포리아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일련의 바이오 관련 이슈들을 보면 회사 존폐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크다”며 “바이오 개발은 긴 싸움인 만큼 자체적인 생존기반을 미리 확보하면 연구성과 도출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씨엘바이오의 매출 약 10억 원 중 95%가 비누 상품에서 발생했다. 자립 능력을 확보한 만큼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월, 당뇨 치료물질 ‘세리포리아’의 2단 배양기술을 성공해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핵심 특허 전부를 취득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기존 단독 배양물에서 발견되지 않던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다량 검출됐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은 혈당강하와 간 손상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으



로, 당뇨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앞서 1월에는 기존 ‘세리포리아 락 세라타’보다 항당뇨 유효성분이 최대 40배 증가한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의 특허권도 취득했다.

최 대표는 “2015년까지는 자연에서 채취한 원균을 사용했지만 이후 자체 개발을 통해 새로운 균주를 얻게 됐다”며 “(특히 취득은) 우수한 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제약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식품원료 등록을 통해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 대표는 “실제 제약품까지 가기 위해선 장기간 자금 투입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도 새 균주에 대한 독성 실험 등 비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제약화로 가기 전에 내년 상반기 내로 특허 낸 균주를 식품원료로 등재하고 다양한 제품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 대표는 기술과 균주, 특허권 등 회사가 1차로 목표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끝냈다고 설명한다. 최근엔 충북 영동에 배양 공장인 씨엘바이오파크가 완공됐고 중국 상하이에 첫 번째 해외 법인도 신설했다.

최 대표는 “기초 비임상도 10월이면 마무리되고 1차 배양 핵심 원료에 대한 배양 공장도 완료됐다”며 “중국 시장의 경우 당뇨병 치료제가 실현될 경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보리 가공’ 김재주 청맥 대표

김재주(사진) 농업회사법인 청맥 대표가 10일 ‘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2007년 전북 고창군에서 보리 가공 사업을 시작해 청맥을 연(年) 매출 80억 원의 융복합 기업으로 일군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맥은 오색컬러 보리쌀과 삼색 보리쌀 등 다양한 보리 제품을 개발했는데, 국내 1호 바리스타인 이동진 씨와 협업해 만든 보리커피는 경쟁제품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 임산부나 위장병 환자에게 인기가 좋다. 검은 보리와 귀리, 현미를 가공해 만든 당죽도 당(糖) 함량이 적어 당뇨 환자를 위한 간편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청맥의 제품은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과 중국 등에 4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김 대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적이다. 제품 원료를 고창과 군산 등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조달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지역 농산물을 기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한강공원과 독성공원에 청보리밭 휴식처도 조성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올스타전 선발 류현진 “재밋게 잘 던졌다”

1이닝 무실점...“빚맞은 안타 아쉽지만...자주 해보고 싶어”

류현진이 생애 첫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경기를 경험한 데 대해 “세 타자로 끝내고 싶었지만 빚맞은 안타가 아쉬웠다. 그래도 기분 좋게 내려온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현진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MLB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나서 1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마쳤다.

1회 말 첫 타자 조지 스프링어에게 중전 안타를 내준 류현진은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내야 땅볼로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끝내고, 마운드를 클레이튼 커쇼에게

넘겼다.

자신의 생애 첫 ‘MLB 올스타전’을 마친 류현진은 취재진에게 “재밋게 잘 던지고 내려온 것 같다. 공 개수도 많지 않았고 땅볼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며 “점수만 주지 말자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걸 잘 해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이 정말 진지하게 임하더라. 재밋었다”라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처음 해봤는데,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도 밝혔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 소속 류현진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1회말 선발투수로 나와 투구 후 수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사진 행사인 레드카펫 세리머니에 참석해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AEPA/연합뉴스, 다저스 트위터 캡처

1992년 미국 대선 ‘무소속 돌풍’ ‘억만장자 사업가’ 로스 페로 별세

1990년대 미국 대선에 두 차례나 출마해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세상을 떠났다.



로스 페로는 최근 5개월간 백혈병 투병을 한 끝에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향년 89세.

페로는 텍사스 출신의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이며 1992년과 1996년 두 차례 미국 대선에 민주·공화 양당 소속이 아닌 ‘제3의 후보’로 출마했다. 특히 1992년 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기성 정치인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무려 19%의 득표율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43%)이 아버지 조지 H.W. 부시(38%) 전 대통령을 이겼다.

페로는 자수성가 사업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1953년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군 복무를 한 뒤 IBM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1962년 부인으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 일렉트로닉데이터시스템즈(EDS)를 세웠다. EDS는 빠르게 성장해 1968년 증시에 상장했으며 제너럴모터스(GM)가 1984년 이를 25억 달러에 인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삼양창업주 5주가...라면 1만박스 기부



삼양식품은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5주기 및 탄생 100주년을 맞아 삼양원동문화재단과 함께 라면 1만 박스를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부되는 라면은 9월까지 전국의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KB국민은행, 디지털 모델로 ‘국민 조카’ 푸아뚜지 선정

KB국민은행은 대화형 뱅킹 앱 리브톡톡(Liiv TalkTalk)에서 진행된 ‘톡톡! 내 방송을 부탁해~’ 이벤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아뚜지(사진)’가 KB 디지털 모델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도서관, 뽀빠, 뽀빠, 푸아뚜지 등 메가 인플루언서 12명이 참여한 유튜브 제휴 콘텐츠 오디오 이벤트다. 1차 투표를 통해 유튜브 12인 중 방송 제작에

참여할 4명의 유튜브(대도서관, 뽀빠, 푸아뚜지, 엔조이커플)가 선정됐으며, KB 리브톡톡 가입자가 이들 중 가장 재미있는 방송을 선보인 유튜브 1명에게 최종 투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모델을 선발했다. 2014년생 쌍둥이 자매인 ‘푸아뚜지’는 구독자 65만 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로, 최근 유튜브에서 국민 조카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통해 고객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리브톡톡 가입자가 직접 뽑은 KB 디지털 모델인 만큼 푸아뚜지를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보기반보호정책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정대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대기 이승수 한창목 김진호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정보과장 김준우 △대변인 김재철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최인순 △부가가치세과장 박광중 △조사1과장 백승훈 △조사2과장 공석룡 △국세조사과장 박정열 △장려세제운영과장 김대일 △대법원 파견 이법진 △국무조정실 파견 임상진 △조세심판원 파견 전지

현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봉 △개인납세1과장 박달영 △개인납세2과장 홍성표 △법인납세과장 한지웅 △조사1국 조사2과장 강승운 △조사1국 조사3과장 이봉근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준희 △조사2국 조사2과장 양정필 △조사3국 조사1과장 전애진 △조사3국 조사3과장 박성학 △조사4국 조사2과장 강영진 △국제조사2과장 오미순 △종로세무서장 고점권 △남대문세무서장 서재의 △용산세무서장 김지암 △성북세무서장 김승민 △마포세무서장 이준호 △영등포세무서장 이훈구 △동작세무서장 안진홍 △강남세무서장 정용대 △반포세무서장 윤순상 △서초세무서장 홍성범 △중랑세무서장 김민기 △도봉세무서장 고현호 △강동세무서장 고영호 △노원세무서장 변세길 [충주지방국세청] △운

영지원과장 운영일 △개인납세2과장 남아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광철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진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한인철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영운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지는 △안양세무서장 정대만 △동안양세무서장 김기영 △동수원세무서장 최명식 △화성세무서장 김영철 △평택세무서장 나성길 △분당세무서장 백운철 △용인세무서장 윤경필 △원주세무서장 공준기 △인천세무서장 이상철 △북인천세무서장 정근형 △파주세무서장 배상재 [대전지방국세청] △정세승무국장 정성훈 △조사2과장 김학선 △대전세무서장 김남선 △동청주세무서장 김수현 △제천세무서장 임지순 △공주세무서장 장종환 △아산세무서장 박태의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황영표 △익산세무서장 김천

기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규호 △조사2과장 강대일 △북대구세무서장 서동욱 △수성세무서장 강영구 △수영세무서장 신동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임동 △교수과장 고영일 [초입 세무서장] △홍천 정순범 △삼척 이광섭 △속초 김왕성 △서산 오원균 △정חק관 △남원 김상경 △목포 장길엽 △해남 박민후 △경산 최종열 △경주 김학관 △영덕 김기수 △상주 구종범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성철 △중부산 이동준 △북부산 이창남 △창원 이민수 △김해 하영식 △거창 박우용

부음

▲노건택(전 내쇼날플러스틱 사장-전 호남식품 사장) 씨 별세, 노지홍(에스디스피드 이사)-무홍-수홍(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채홍(유니아이비 이사) 씨 부친상 = 10일,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47-0750~1

▲신덕심 씨 별세, 이형석(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형영-형윤-경희-현주 씨 모친상 = 9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12일 오전 7시, 062-220-3352

▲최임생 씨 별세, 배기준-기운(한국LPG산업협회 수도권협회장)-기필 씨 모친상 = 9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VIP 7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32-290-3517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며칠 전부터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 전에 완전한 핵 폐기가 난망한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차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은 선거운동에서 쓰임새가 가장 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일 게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후에 북·미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의 본격임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선부른 일일 수 있지만 판문점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의 향배를 유추해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선에서 민주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일 게다. 이것이 앞으로 협상의 목표, 타임라인,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테두리를 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관례, 통념 같은 것들을 깨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톱다운 방식도 계속 활용될 것이다.

그 징후들은 판문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적국 지도자의 안내로 적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좋하게 되었다고 하며 잦은 스킨십을 보였다.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했다고도 했다. 통념상 외교 관계가 없는 적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강

한 의지도 보였다. 하노이 회담이 성공이었다고 말하고 북측 협상 팀원들의 안위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극구 껐다. 미국에 돌아가서는 김 위원장이 건강해 보인다는 멘트도 날렸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2년 반 전에는 이 지역이 매우 위험했는데 지금은 평화로워졌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9점 몇 도의 지진이 났고 일본, 하와이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이렌이 울렸다고도 했다.

그는 제재에 대해서도 말했다.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한다. 협상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협상과정에서 제재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에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나 줌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협상의 달인임을 자부하는 그는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말을 가장 싫어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그가 지금의 성과가 자신과 김 위원장과의 친분 때

문을임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가 너무 일찍 또는 쉽게 제재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다.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제안들이 오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5개의 핵시설 가운데 1~2개만 폐기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깨졌다고 했었다. 이 말에 비추어 이 방안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 전에 완전한 핵 폐기가 난망한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차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은 선거운동에서 쓰임새가 가장 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일 게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결점을 안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 방안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1~2개와 5개 사이에서 타협을 하면 완전한 핵 폐기는 일단 물 건너가는 반면 북한은 반대급부로 북미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비판하는 쪽으로부터 못매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가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제재 해제, 체제 안전보장을 원한다. 그런데 제재를 변경하려면 미국 법령이나 안보리 결의를 수정해야 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 다 미국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 목표로 이들을 제외한 반대급부를 북한에 주고 동결을 얻어낸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고 상주대표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를 위한 정치작업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는 것을 막아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마는 디테일에 있다. 동결도 제대로 하려면 핵시설 리스트와 검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CEO 칼럼

이용범

프뉴마 대표·반도체산업구조혁신위원회 대표



자존심은 작은 전투, 국익 위한 전략 필요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감광액(PR)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안주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전략전술에 맞서 감성적 대응으로 추가 보복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화이트 국가' 제의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자동차·조선·화학 등 다른 핵심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작은 전투에 명운을 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익 증대라는 큰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전술이 요구된다.

손과 제3국 기업·소비자 피해도 예상되는 바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일본 상품 불매 등 감성적 대응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감성적 대립이 아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 대응을 보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없이, 중장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장비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필요성은 20년 이상 제기돼 온 과제인데, 정부와 소자 대기업이 비용절감 등 눈앞의 이익을 앞세우며 이를 외면해온 결과가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도 크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감성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WTO 제소도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어렵다. 이긴다 해도 이미 우리 산업과 경제가 썩대밭이 된 후일 확률이 높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정부 외교력, 기업 기술력 등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일은 경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긴밀하게 엮여 있어 상호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과거의 뒷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책은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푸젠진화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와 일본의 보복 조치를 통해 장비·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소자 산업을 넘겨주면서 장비·소재

산업을 통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노하우를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라는 장점을 활용해 장비·소재 산업을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국 및 인도-베트남 등에 반도체 플랫폼 및 장비·소재 수출 등 수익 다변화를 통한 국익 창출이 필요하다. 장비 및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2위 업체인 양대 소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소'를 설립, 중소·중견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자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도체산업구조혁신 추진위'를 구성, 장비·소재 산업 육성이 양대 소자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변질되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존 킨시 애덤스 명언
"당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리더다."

미국의 정치가. 2대 대통령 J.애덤스의 아들로 6대 대통령을 지냈다. 각국의 주재 공사를 지내고 국무장관이 되어 '먼로 선언'의 기초를 맡았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하원의원으로도 활약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67~1848.

☆ 고사성어 / 연저지인(吮疽之仁)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 나오는 이야기. 위(魏)나라 장수 오기(吳起)가 종기가 난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 낸 다음 손수 약을 발라 주곤 했다. 소문을 들은 병졸의 어머니가 통곡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지나간 해에도 오 장군이 그 애 아버지 종기를 빨아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오 장군이 이번에 또 그 자식 종기를 빨았으니 나는 그 애가 언제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시사상식/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용어. 영국 사회학자 루스 클래스가 런던 서부의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이 들어와 고급 주택지로 탈바꿈하고, 거기 살던 주민은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역의 구성과 성격이 변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해 널리 퍼졌다.

☆ 유머 / 그림 천천히 뽑을까

치과에서 치료받은 아가씨가 청구서를 보고 의사에게 말했다. "이 하나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되는데 1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의사의 즉답. "그럼 천천히 뽑아드릴게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광복 74주년을 맞는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부터 영유권 문제, 남북 현안 등에서 사사건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계속되는 일본의 몽니가 절정에 이르렀다.

일본의 기초과학은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손쉽게 각종 산업의 화학·소재 부품을 조달해 왔다. 제품의 퀄리티, 가까운 운송거리 등의 장점을 갖춘 일본은 우리 기업에 안정적인 우수한 소재 공급을 가져다 줬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국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일본 '몽니'로 깨달은 '소재 독립'의 절실함

내 자체 연구·개발(R&D) 역시 이러한 이유와 각종 산업·환경 규제로 정체됐다.

일본 산업계 인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재 식민지였음을 깨닫게 됐다고 탄식한다. 당장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거론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외에도 일본은 각종 반도체 장비와 웨이퍼 등을 생산하며 반도체 분야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초정밀 카메라용 광학렌즈의 원천기술,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모터 부품

등도 일본산이다.

이번에 일본이 허를 찌른 품목들도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다른 국가나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7.8%에 달한다. 일본의 공격이 뼈아픈 이유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일 간 무역 이슈가 이미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 일본이 단 3가지 품목만 건드렸는데도 벌어진 일이다. 광복 74주년, 이제는 경제 독립, 기술 독립, 소재 독립을 이뤄야 할 때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당신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여름은 구심력으로 여름 한가운데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 연일 불볕 같은 폭염이 쏟아질 때 꽃진 자리마다 잎들이 마구마구 피어났다. 지귀나무에 꽃이 피고, 배롱나무 가지에도 꽃이 피었다. 수목은 울울창창해져 검푸르게 출렁인다. 봄날의 기억은 지구에서 4억 광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프록시마처럼 까마득히 멀어진다.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의 시간을 산다. 하지만 나의 현재와 당신의 현재는 똑같지 않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사물의 양과 특성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장소마다 다른 양자중력의 차이로 인해 이런 변화가 생겨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현재는 확정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 있다.

같은 이유로 내 하루와 당신의 하루는 같지 않다. 우리의 시간은 다른 방식과 다른 리듬을 갖고 흘러간다.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서 시간이 같은 리듬과 속도를 갖고, 과거에서 미래로 선조적(線性的) 흐름을 타고 흘러간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도 시간은 하나의 방향, 하나의 흐름만을 갖지 않는다. 이 세계 안에는 다른 속도와 흐름이 존재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수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달에서의 하루와 지구에서의 하루, 화성에서의 하루와 목성에서의 하루, 안드로메다 은하에서의 하루는 시간의 길이가 제각각이다. 날짜와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란 없다는 게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시간의 실체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사실쯤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과거엔 촛불이 더 밝게 빛나고, 젊은 어머니들은 더 기쁨이 있고 어여뻐고, 모든 이별이 만드는 슬픔은 더 날카로웠다. 우리는 더 밝고 아름답게 태오르던 촛불과, 더 기쁨이 있던 젊은 어머니들과, 더 날카로운 이별의 슬픔을 잃어버렸다. 그 사이 우리 재능은 평범한 것으로 바뀌고, 우리 삶을 빛내주던 고귀한 빛은 사라져 과거와 견줘 희미해졌다.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파동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낸 시간, 운동, 흐름의 총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면에 남긴 무수한 기억의 무늬들. 우리는 그 무늬를 끄집어내 어루만지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흥미롭게 읽었다. 양자중력 이론의 관점에서 시간의 본질을 탐구한 로벨리는 "모든 장소의 시간은 다른 리듬과 속도를 갖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양자역학의 장(場) 안에서 시간은 유일한 것이 아닐뿐더러 장소마다 다른 리듬을 갖는다는 것이다.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흐르고,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 "궤적마다 다른 시간의 기간이 있고, 장소와 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리듬으로 흐른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가? "여러 장소에서의 시간도 하나로 공통적이지 않지만, 한 장소에서의 시간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만 당

신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이런 시간 속에 빛어지는 사건이다. 벽과 벽 사이를 내다보는 사이 하얀 말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어른들은 그게 세월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은 그토록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서둘러 나이를 먹으며 늙어간다. 우리는 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을 겪는다. 우연한 일들을 겪고, 거기에 필연적인 사건들이 겹쳐지며, 인생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맑은 날씨와 굵은 날씨가 번갈아가며 현존의 트랙을 방문하고, 행운과 불운이 다른 시각에 찾아온 손님인 듯 우리를 방문한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 우주적 파동 그 자체로 존재했다. 그때에도 버드나무와 회양목은 봄마다 잎을 피우고, 매미와 잠자리는 날개를 얻어 공중을 날고, 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만든 열매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를 내치고 그들이 가져야 할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 누리는 자들의 탐심은 여전히 꾀꾀하고 사납다. 더 좋은 세상에서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미는 여름 내내 시끄럽게 울어댔다. 심장이 쪼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첫 사랑을 겪어낸 뒤 우리는 세월이 얼마나 무정하고 덧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지금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과 나는 헤어졌다. 그 뒤로 당신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만든 열매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를 내치고 그들이 가져야 할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 누리는 자들의 탐심은 여전히 꾀꾀하고 사납다. 며칠 전 서울의 제화 기술자들이 한곳에 모여 식발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제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 까닭은 구두를 짓고 받는 공임이 지나치게 작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높은 수수료를 올 때는 탓

에 제화 노동자의 공임이 낮아졌다고 한다. 판매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하청공장의 납품단가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제화 노동자의 공임도 덩달아 깎인 까닭이다. 제화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30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짓고 손에 쥐는 돈이 달랑 7000원 안팎이라고 한다. 어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것은 복잡하게 꼬인 유통구조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 커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이런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화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힘들게 일하는 제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들보다 더 조금 수고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챙기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더 좋은 세상에서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는 2014년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때 바닷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작은 섬이 생겨났다. 지진으로 인해 진흙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중위로 모습을 드러낸 이 섬이 최근 감쪽같이 사라졌다. 높이 20미터, 너비 90미터, 길이 40미터로 그 형체를 드러냈던 섬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에서 포착될 정도였다. 이 섬은 죽은 바다 생물들, 진흙과 모래, 바위로 뒤덮여 검은 색을 유지해 왔다. 관광객들도 멀리서나마 이 섬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위로 솟구쳐 생겨난 섬은 6년이 지나 사라진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인도양의 거친 날씨와 파도를 꾀꾀하게 견디고, 바다의 조수작용으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더니 이젠 아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정확하게는 2016년 11월부터 모습을 감추더니 마침내 올해 4월경 위성사진에서 사라져 더 이상 관측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섬은 수중에 가라앉은 형태로 그 흔적을 보여주지만 그마저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듯 시간은 흘러가면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던 것을 사라지게도 한다.

단한 시간의 곡선 안에서 나는 오래 울었던 적이 있었던가? 당신이 떠난 뒤 내가 견뎌야 할 시간의 밀도와 리듬이 달라져서 힘들 것임을 알았다. 시간의 유일성과 통일성이 전과 달라질 것이란 내 예감은 적중한다. 과연 나 혼자 맞는 시간의 흐름과 속도가 달라지고, 순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때보다 시간이 내게 덜 우호적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그 때문에 나는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는 나 스스로가 불쌍해서 울었다. 저 우주의 시간과 지구에서 우리가 겪는 시간은 다르다. 우리는 다른 속도와 흐름을 가진 시간 속에서 탄생과 죽음을 겪고, 인연을 만나 사랑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갖가지 실패와 성공, 희로애락을 겪는다. 당신과 내가 오늘을 함께 살아도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시설

한·일 정치갈등이 경제 망치는 현실 타개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고,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강도를 높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간비상대응체제를 갖춰 범정부적으로 단거·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세제·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0대 그룹과 경제단체 4곳이 초청됐다. 그러나 전경련은 또 제외됐다. 전경련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経団連)의 카운터파트로 양국 간 민간경제외교의 채널을 맡아왔다. 두 단체는 1983년부터 공동으로 한일경제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민감한 사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을 비롯해 많은 정책 건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안정적 공급·수요시스템 구축,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흐르지 않는 금융과, 연구개발 및 신규물질 생산을 막는 환경규제 등의 혁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한·일의 정치문제로 인한 정부 간 대립이 경제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상황으로 번지는 현실의 타개다. 이번 사태는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촉발됐다.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 일본 재계와 밀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도 불참하면서 현지에서 뛰고 있지만, 민간 차원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응 의지는 결연해도 협상의 돌파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추가적인 보복조치까지 예고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클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당장의 실효적 대책이 못 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는 어제오늘 강조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늘 구호에만 그쳤고 적극적 실행과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 지원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탈(脫)일본 대책과 경제와 산업 체질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예견(豫見)과 예단(豫斷)

지난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금년 초에 윤석열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어떤 의원이 "(장차)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난 것은 적절한 일이었나?"고 물었다. 금년 초에 만난 사람이 6월 달에 피의자로 고발되었는데 그걸 예견 못하고서 만난 게 잘한 일이라고 따진 것이다.

물론,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혜안(慧眼: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윤국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가 당시 어떤 한 사람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은 장차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사람이니 너무 가까이하지 마시라"는 충고를 함으로써 훗날 남편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한 일은 혜안의 대표적 사례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이처럼 사람을 꿰뚫어 보고서 가까이 지낼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마다 그런 능력과 안목을 기르기 위

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다.

혜안을 가지고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예견(豫見)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예견은 자칫 매우 경망스런 예단(豫斷)으로 둔갑할 수 있다. '미리 예(豫)와 '볼 견(見)'을 쓰는 豫見은 미리 내다보고서 잘 대비한다는 뜻이지만, '끊은 단(斷)'을 쓰는 豫斷은 선부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예견을 잘 못 해도 낭패가 될 수 있지만 무리한 예단은 일을 그르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칫 예견이 예단으로 둔갑하거나 전락할까 봐 예견하기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개월 전에 만난 일을 가지고 "그게 잘한 일이나?"고 따지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피의자가 아닐 때 피의자로 예단하여 만나기조차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인격적인 처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화이트, 그레이, 핑크... 그냥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비스포크 냉장고니까요”



BESPOKE

2도어+1도어x2

Glam White/Satin Gray +
Glam White +
Glam Pink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